



서울대미주동창회보

www.snuaa.org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in the USA

219호 2012년 7월

서울대 미주 동창회
1225 W.190th St., #465
Gardena, CA. 90248 USA
Tel: 310-515-7888 Fax: 310-515-7883
e-Mail: snuaasny@yahoo.com



제21차 평의원 회의

알래스카 크루즈로 추억과 낭만의 여정

토의와 협의의 통해 모든 안전 원만하게 마무리
건강 및 조직사회, 한국경제 관련 강연도 가쳐

제21차 미주 동창회(회장 김은종·상대 59) 평의원 회의 행사가 140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알래스카 크루즈 Norwegian Pearl호 선상에서 지난 7월 8일 화려한 전야제를 시작으로 9일 본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김은종 미주 동창회장은 환영사와 격려사를 통해 '각 지역 평의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평의원 회의가 회를

거들할수록 나날이 발전하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동창회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1-2면 참조).

임광수 서울 동창회장은 격려사에서 '미국 전역에 있는 각 지부 동창회의 결속력을 다지고 모교 발전에 건의와 역할을 하기 위해 결성된 미주 동창회는 그동안 동문들을 폭넓게 규합시키는 사업을 전개해오며 미주 동문들의 단합은 물론 미

주 한인사회의 화합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치하했다(2면 참조).

성주경(상대 68) 사무총장의 사외 보고발언을 9일 오전 본 회의에서는 제11대 회장단 인선 인제 보고를 비롯해 송승연 인제 동창회장의 전 회칙의 (제20차 평의원 회의) 낭독이 있었다. 또 성주경 사무총장을 비롯한 백옥자 총무국장, 지인수 동창회보 편집위원장, 김재영 감사

등에 의해 Brain Network 행사 준비 및 Event사업 보고, 동창회보 보고, Website, 계부 보고, 편약후원회, 모교 동창회 및 미주 동창회 보고 분담금, 모교발전기금, 종신이사회 보고, 감사보고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김은종 동창회장은 장학 위원회와 모교발전기금의 통합한, 장학위원회 세칙변경, 위원회 위원 선출, 종신이사 기금 3분의 1의 미주 동창회 운영비 전한, 중부 텍사스 지부 신설 추진, 추진위원회의 위원 선출, 동창회보 제호 Design 변경에 대한 추진 문제를 제의했다.

점심 식사 후 이같은 안전들에 대한 토의와 추진 시간이 이어져 오후 4시반 경 안전들이 무리없이 처리됨으로써 제21차

←제21차 미주 동창회 평의원 회의를 마친 후 회장단과 각 지역 동창회 대표자들이 김은종 미주 동창회장(앞줄 가운데)을 중심으로 기념 촬영했다.

평의원 회의가 아주 원만하게 마무리 됐다(3-4면 참조).

한편 평의원 행사 중 그동안 미주 동창회에 봉사한 동문들에게 임광수 총동창회장과 김은종 동창회장이 각각 공로상을 수여했다(5-6면 참조).

본 행사 뒤인 10일과 12-13일은 강수상(의대 47) 박사를 비롯해 오인환(문리대 62) 차기 동창회장과 최경관(상대 68) 전 건설교통부 장관, 김호원(치대 52) 박사에 의해 각 분야 수준높은 강연을 결정하는 교양과 문화의 시간을 가졌다(7-8면 참조).

강수상 박사는 '노화와 항노화에 미치는 유전과 환경의 역할', 김호원 박사는 '건강상식 이모저모', 오인환 차기 동창회장은 'Leadership and Group IQ'를 주제로 강연해주었다. 또 최경관 전 장관은 '한국 경제의 과세와 대응 방법'을 통해 우리 조국의 경제실상과 앞으로의 경향은 자세하게 들어주었다.

이 행사 뒤 평의원과 가족 및 친지들은 Norwegian Pearl호 선상에서 여행을 즐기고 알래스카의 유서깊은 주도(主都)인 Juneau를 비롯해 Ketchikan-Skagway와 Canada의 Victoria를 관광하는 등 평생을 남을 추억과 낭만의 여정을 만끽했다(16-18면 참조)***편집주***

김은종 동창회장 동문 가족 합참사진

“안배를 타단 가족의 마음으로...”



전해하는 서울대학교 동문 여러분! 대담의 2012년,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었고 제 같은데 벌써 인국이 우거진 7월이 되었습다.

푸른 바다와 작별하는 태양, 넘치는 정열과 활기로 가득한 여름의 문턱에서, 북미주에 거주하는 서울대학교 동문 여러분

들과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서울대학교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평의원님들께서 Alaska Cruise, Norwegian Pearl호에 동창회심을 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서울에서 임광수 총동창회장과 부회장님들을 비롯한 평의원님들과 지인들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셨기에 더욱 감동되고 화기애애한 여정(Harmonious, Peaceful & Happy Voyage)이 될 것 같습니다. Alaska Cruise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정경지역으로, 수려한 경관과 스릴넘치는 다양한 Activities, 북미 최고급인 배커리션을 비

롯한 수많은 국립공원들과 야생동물들 등... '기대만 땅'을 의미하는 'ALASKA'란 인디언 말에서 Cruise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담은 최고라고 극찬하는 이 여정에서, 우리들은 지금부터 7박 8일의 일정에 그야말로 '한 배를 탄, 한 가족'이 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은 저드넓은 태평양 바다로 실어보내고, 이제부터 신선한 공기과 대자연 속에서 우리의 생기와 활력을 되찾으며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기쁨과 감사함, 즐거움으로 한 가족이 되어 Cruise를 만끽합니다!

◀연에 계속▶

'미주 동창회보'는 동문들의 동창회비(구독료 포함 1년 75달러)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회기가 7월 1일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SNUAA. 1225 W. 190th St. #465. Gardena, CA. 90248

NON-PROFIT
US POSTAGE PAID
GARDENA, CA
PERMIT No. 177

임광수 총동창회장 격려사

“모교의 발전이 곧 조국의 미래임을 자각”



존경하는 김은중 회장님을 비롯한 전 임 회장님들, 그리고 오인환 차기 회장님과 평의원 분들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1년만에 다시 만나게 되어 참으로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미주 동창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평의원 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주 지역에 있는 각 동창회의 건속력을 다지고 모교 발전에 건전하고 역할을 하기 위해 결성된 미주 동창회는 그동안 동문들을 특별히 규합시키는 사업을 전개해오며 미주 동문들의 단합을 돕는 미주 한인사회의 화합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 각 평의원과 지부 동창회가 한 마음으로 단합해서 이루어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을 하고 계신 김은중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존경하는 평의원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평론가 존 러스킨(John Ruskin)은

“위대한 사물의 역력은 항상 미래로 통하는 길을 닦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미래로 통하는 길이란 선후배 동문들과 모교를 향한 관심과 지원일 것입니다. 저는 동창회장직을 맡으면서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된 미래를 위해 여러 가지 역점사업을 추진해 오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과 동문들을 통솔하기는 매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선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의 교육평판과 정책에 따라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서울대 재교원과 국립대학 공동학위제가 논의되고 동창회보 통해 이의 부당성을 여쭙자고 해서 ‘국가 경쟁력과 교육의 우위성’이라는 제자들과 시의적절하게 발전, 요망에 배포함으로써 그 논란을 잠재우는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또한 총장님들이 세계 명문대 모임에 나갈 때마다 모교의 역사가 짧아 많은 어려움을 있다는 기거를 듣고 모교의 발전을 위한 개로 원정하기 운송을 2년 6개월간 전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모교 구상원들을 실행, 의견의 일치와 보고 2010년 10월 계교기념식에서 총장이 이를 선포함으로써 우리 서울대는 세계 명문대학에 손색이 없는 117년이라는 역사와 전통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의 역조사업의 하나인도 모교와 후배들의 지원체제 역할을 하게 될 장학재단은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1년 3월 3일 완공, 건물 일대사업들을 통해 후배들의 장학금과 모교에 연간 40억원 이상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런 여건까지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은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는 앞으로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모교의 발전이 조국의 미래임을 하고 더욱 더욱 힘을 통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교는 연초에 국립대학법인 시

김은중 동창회장 평의원 환영사<>

“평의원들의 열정과 헌신이 동창회 원동력”



존경하는 북미주 서울대학교 동창회 평의원 여러분!

다사다란 많은 일을 뒤로 하고, 모교의 발전과 동문간의 우애를 굳건히 하고자 이렇듯 한 자리에 모인 북미주 서울대학교 동창회 평의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특히 서울에서 일할 수 동창회장과 여러 부회장님들에서 그간 길을 한

걸음이 달려와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북미주 서울대학교 동창회는 각 지역에서 오신 평의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그 회를 거듭할수록 다 같이 발전하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동창회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 사색을 생각을 초월하여 각 지역의 좋은 의견을 존중하고, 서울대학교 동창회가 북미주에 존재하는 그 깊은 의미와 본질에 충실함으로써, 우리 동창회가 더 의미있고 값진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평의원 여러분들의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제11대 북미주 서울대학교 동창회장직을 맡은 것을 비롯한 지회 임원진에게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격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Alaska Cruise를 통해 각 지역에서 오신 서울대 동문들과 그 가족들에게 서로의 유정과 사랑을 나누고자 열렬히 기대를 수 있도록 간절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대학교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이는 모교가 빈민화됨으로써 자율권을 확보하고 안정적 재정확충이 가능하게 되어 세계 초일류 명문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일할 수 동창회장과 여러 부회장님들에서 그간 길을 한 걸음이 달려와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Alaska Cruise를 통해 각 지역에서 오신 서울대 동문들과 그 가족들에게 서로의 유정과 사랑을 나누고자 열렬히 기대를 수 있도록 간절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습니다.

앞으로도 총동창회는 모교의 발전과 동문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서울대 가족들의 원과 사랑을 나누고자 열렬히 기대를 수 있도록 간절히 수 있습니다.

미주 동창회 평의원 여러분도 모교와 동창회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제21대 평의원 회의를 위해 수고로써 감사드립니다. 미주 동창회 임원 여러분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면에서 계속>

1867년 미국무장관인 William H. Seward가 러시아로부터 Alaska를 구입했을 때, 'Sacked orange', 'Frozen wilderness'를 붙인다고 언론들은 후회하였지만, 당시 720만 달러에 이르는 이 불모지는 오늘날 가장 값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 철, 구리, 금, 천연수질의 목재 등 원천은 자원의 가치를만 하여도 수백억 달러에 이르며, 전략적인 중요지라는 물론 한 경연구에도 화산(噴火)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극부조를 통해, 'Alaska Purchase'의 역사적 배경이 서울대학교 동창회가 우리들 개인에 있어 좋은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임시적 현상만 바라보며 표면적 판단을 하지 않고, 총체적



상황과 미래를 예견하는 통찰력, 그리고 깊이 있는 안목을 갖고 일을 추진해나갈 때 우리들께 더 좋은 확실한 미래가 주어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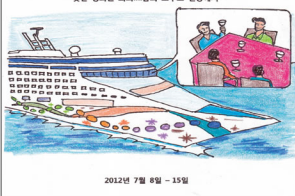
사랑하는 동문들과 가족 여러분! 이 미래의 기쁨을 나누시길 다시 한번 당부하며, 예정 중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신데까지 저의 임원진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습니다! 혹여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불편한 점이 발생하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시면 해결해나간다면 더욱 즐거운 일이 될 것이고,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동문에는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동문 여러분!

시사만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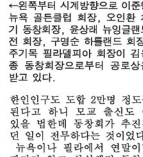
박근혜 인문대 79·번호사

멋진 평의원 회의...공포의 코트 선상에서



2012년 7월 8일 - 15일

4. <제21대 평의원 회의> 전이제와 본 회의 이도 제로 4. <제21대 평의원 회의> 각 분야 심도있는 회합 도록/권기원 위생팀 동창회 전 5. 임광수 총동창회장 공로사 수여	6. 김은중 동창회장 공로사 수여 7. <제21대 평의원 회의> 김강진 김호철 박사 강연/김수신 박사 강연 8. <제21대 평의원 회의> 김경태 김준환 전 건설교통부 장관 강연 9. <제21대 평의원 회의> 임광수 총동창회장 이준희 뉴욕 글로브빌 회장, 수주령 시무총장 최흥찬 전 장관	10.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11.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12.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13.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14.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15.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16.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17.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18.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19.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20.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21.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22.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23.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24.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25.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26.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27.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28.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29.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30.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31.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32.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33.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34.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35.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36.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37.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38.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39.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40.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41.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42.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43.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44.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45.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46.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47.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48.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49.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50.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51.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52.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53.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54.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55.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56.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57.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58.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59.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60.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61.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62.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63.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64.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65.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66.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67.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68.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69.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70.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71.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72.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73.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74.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75.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76.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77.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78.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79.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80.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81.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82.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83.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84.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85.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86.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87.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88.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89.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90.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91.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92.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93.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94.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95.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96.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97.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98.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99.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100. <관악세대>이기가 세상에 나오는 일/ <관악세대>한글쓰기 예주가 없었어?>
--	---	--



김은중 미주 동창회장 공로상 수여

“동창회에 할 일 더둑 많아요”

“세계적인 대학 도약에 더욱 동참할 터”

▶이준형 (뉴욕 공돌림회 회장) ▶동창회를 위해 크게 공헌하지 못한 저에게 이같은 영감을 주시는 것은 앞으로 더욱 동창회를 위해 헌신하려는 뜻으로 앞장섰습니다.

저는 해방 직후인 1948년 공대입학했습니다. 정적 혼란과 그후 6.25 한국전쟁 때문에 학교생활을 충실히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대학 생활의 남다른 가질 수 없었습니다. 자연히 학교에 대한 관심이나 애교심도 특별하지 않았습다.

그러나 나이 들며 오랜 미국 생활을 하면서 피나는 학업 사색이 그러하지도 모고에 내 안 관심과 애착심이 자라게 됐으며 제때에 가까워진 만국의 작은 대학이 세계적인 우수 대학으로 발전하게 된 것을 보면서 더욱 경탄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실 모교가 세계적 최우수 대학의 대열에 오른 것이니 젊은이들의 기쁨과 보람이 세게 어느 대학에도 추종을 해할 수 없습니다.

과학·공학, 특히 컴퓨터 등의 문명을 창하는 이런 국외의 문명 선진에서 130여명의 동문 선진들은 대단한 것을 보아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간 교수·학생 등 동문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는 문명의 기쁨이 더욱이 학교 운영에 자금을 투자해 되었으니 2025년까지는 세계 최우수 대학 10위권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모교는 세계를 선도하는 전 인류의 제비니티를 위한 노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 최첨단 대학으로의 경쟁적 기기도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이같은 새로운 도전에, 모교가

충분히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 예로 총동창회 회관을 들 수 있습니다. 임팩트 투자의 탁월한 지도로 최근 설립된 회관은 지난 40여의 임대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이 수입은 장학금과 교수 연봉 보충에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동창회 회관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인 지상 18층, 지하 6층의 규모입니다.

우리는 비록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모교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응하는 세계적인 대학에 동참하여 갑니다. 학교 운영에 자금을 지원하든 모교는 물론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뿌리는 모교입니다. 이 뿌리가 든든히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가꾸어 나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이 공로상을 수상한 김은중 회장과 임원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중부 텍사스를 빛내는 동창회도 만들겠습니다”

▶이명재 (중부 텍사스 동창회장) ▶이명재는 이번 금년 중부 텍사스 동창회를 설립한 공로를 치하하는 뜻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선 부족한 이 사람이 말한 것에서 할 줄조그만 일로 상을 받게 될 무한한 영광이나 환관은 한시지나면 자는 중부를 돌아 미국에서 수도권을 생애가 끝난다.

지난 2010년 초 이명재 중부 텍사스 조지타운을 수리 위해 왔을 때 아내(사내 60)와 나는 이곳에 동창회가 있다는 것을 매우 의아하게 생각했다. 우리 지역에서 약 35여년 이래 중부 텍사스 수도인 오스틴에서 10여년 35여년 서쪽 쪽인 덴버에 한 군도시가 있다.

“우연히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준형 뉴욕 공돌림 회장, 오인환 차기 동창회장, 윤상호 뉴요글랜드 전 회장, 구명호 하버랜드 회장, 주기복 필라델피아 회장이 같은 중 동창회장으로부러 공로상을 받은 것이다.”

한인인도 도합 2만명 정도는 된다고 하니 모교 출신도 좀 많은 법한데 동창회가 추진된 일일 전후라는 것이었다.

뉴욕이나 덴버에 1인당 1만명 10위를 위해 우리에게 바라는 사람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된 것이다.

첫째, 많은 동문 교수들이 유가 셋구(Sabbatical Leave)를 이용해 미국을 방문하고 있다. 셋째, 우리 동창회는 기술업, 학보에 동창회 운영난을 해소하고, 장차 백년대계의 후진들이 원활하게 동창회를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만 한다.

둘째, 우리 동창회가 전설로 모교를 위한 모임이라면 대학 당국과 긴밀한 대화를 통해 모교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2025년 세계 최첨단 10위를 위해 우리에게 바라는 사람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된 것이다.

셋째, 많은 동문 교수들이 유가 셋구(Sabbatical Leave)를 이용해 미국을 방문하고 있다. 넷째, 우리 동창회는 기술업, 학보에 동창회 운영난을 해소하고, 장차 백년대계의 후진들이 원활하게 동창회를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만 한다.

이 상을 주시는 김은중 미주 동창회장님과 수고하시는 건부여분께 감사사를 드리며 이 상을 중부 텍사스 회원 모두와 나누고 싶다. 특별한 해에 내어 내 우리 동창회가 미국에서 바나나로 주권의 발전적인 성장해 중부 텍사스를 빛내는 중부의 단계를 빛낼 것이다. ***

“4대 목표위해 모든 동문이 협력해야”

▶윤상재 (뉴요글랜드 전 동창회장) ▶김학스민 전회장 김은중 회장과 주기복 회장이란 말에 이미 정해진 일로 인정하고 감사하게 수상할 것을 전했다.

그후에 임원진들 위임받은 쓰지 않았으니 더 열심히 해보자는 뜻으로 노력했다. 앞으로 우리 동창회는 미주 동창회의 명분을 보일 수 있는 큰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다. 모교는 2025년까지 세계 최첨단 10위 대학 글로벌 화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를 위해 모교가 미주 동창회에 바라는 기대가 또한 클 것으로 알고 있다. 1만여 동문의 우리 미주 동창회는 물론 장제 카이로와 오사카, 도쿄, 서울, 대만 등 전 세계에 있는 동문과 준비가 돼 있는가.

아직도 우리 동창회는 2만여 다 이사를 다니는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고, 매달 발행하는 회보 또한 10%도 안되는 동문들만이 연락하고 있는가. 우리도 오고 있다. 그래서 본인은 다시 한 번 더 이 기회에 본인의 주장을 밝히 본다.

첫째, 우리 동창회는 기술업, 학보에 동창회 운영난을 해소하고, 장차 백년대계의 후진들이 원활하게 동창회를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만 한다.

둘째, 우리 동창회가 전설로 모교를 위한 모임이라면 대학 당국과 긴밀한 대화를 통해 모교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2025년 세계 최첨단 10위를 위해 우리에게 바라는 사람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된 것이다.

셋째, 많은 동문 교수들이 유가 셋구(Sabbatical Leave)를 이용해 미국을 방문하고 있다. 넷째, 우리 동창회는 기술업, 학보에 동창회 운영난을 해소하고, 장차 백년대계의 후진들이 원활하게 동창회를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만 한다.

이 상을 주시는 김은중 미주 동창회장님과 수고하시는 건부여분께 감사사를 드리며 이 상을 중부 텍사스 회원 모두와 나누고 싶다. 특별한 해에 내어 내 우리 동창회가 미국에서 바나나로 주권의 발전적인 성장해 중부 텍사스를 빛내는 중부의 단계를 빛낼 것이다. ***

“존경과 사랑으로 뭉쳐진 동창회 만들터” ▶구명호 (하버랜드 동창회장) ▶이명재 회장은 감사할 바입니다. 임원진들 위임받은 쓰지 않았으니 더 열심히 해보자는 뜻으로 노력했다. 앞으로 우리 동창회는 미주 동창회의 명분을 보일 수 있는 큰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다. 모교는 2025년까지 세계 최첨단 10위 대학 글로벌 화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를 위해 모교가 미주 동창회에 바라는 기대가 또한 클 것으로 알고 있다. 1만여 동문의 우리 미주 동창회는 물론 장제 카이로와 오사카, 도쿄, 서울, 대만 등 전 세계에 있는 동문과 준비가 돼 있는가.

아직도 우리 동창회는 2만여 다 이사를 다니는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고, 매달 발행하는 회보 또한 10%도 안되는 동문들만이 연락하고 있는가. 우리도 오고 있다. 그래서 본인은 다시 한 번 더 이 기회에 본인의 주장을 밝히 본다.

첫째, 우리 동창회는 기술업, 학보에 동창회 운영난을 해소하고, 장차 백년대계의 후진들이 원활하게 동창회를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만 한다.

둘째, 우리 동창회가 전설로 모교를 위한 모임이라면 대학 당국과 긴밀한 대화를 통해 모교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2025년 세계 최첨단 10위를 위해 우리에게 바라는 사람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된 것이다.

셋째, 많은 동문 교수들이 유가 셋구(Sabbatical Leave)를 이용해 미국을 방문하고 있다. 넷째, 우리 동창회는 기술업, 학보에 동창회 운영난을 해소하고, 장차 백년대계의 후진들이 원활하게 동창회를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만 한다.

이 상을 주시는 김은중 미주 동창회장님과 수고하시는 건부여분께 감사사를 드리며 이 상을 중부 텍사스 회원 모두와 나누고 싶다. 특별한 해에 내어 내 우리 동창회가 미국에서 바나나로 주권의 발전적인 성장해 중부 텍사스를 빛내는 중부의 단계를 빛낼 것이다. ***

극적하고 나 아닌 우리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입니다.

맛도 모르고 말은 Heartland 지부(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카이로와 오사카, 도쿄, 서울, 대만 등 전 세계에 있는 동문과 준비가 돼 있는가.

아직도 우리 동창회는 2만여 다 이사를 다니는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고, 매달 발행하는 회보 또한 10%도 안되는 동문들만이 연락하고 있는가. 우리도 오고 있다. 그래서 본인은 다시 한 번 더 이 기회에 본인의 주장을 밝히 본다.

첫째, 우리 동창회는 기술업, 학보에 동창회 운영난을 해소하고, 장차 백년대계의 후진들이 원활하게 동창회를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만 한다.

둘째, 우리 동창회가 전설로 모교를 위한 모임이라면 대학 당국과 긴밀한 대화를 통해 모교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2025년 세계 최첨단 10위를 위해 우리에게 바라는 사람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된 것이다.

셋째, 많은 동문 교수들이 유가 셋구(Sabbatical Leave)를 이용해 미국을 방문하고 있다. 넷째, 우리 동창회는 기술업, 학보에 동창회 운영난을 해소하고, 장차 백년대계의 후진들이 원활하게 동창회를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만 한다.

이 상을 주시는 김은중 미주 동창회장님과 수고하시는 건부여분께 감사사를 드리며 이 상을 중부 텍사스 회원 모두와 나누고 싶다. 특별한 해에 내어 내 우리 동창회가 미국에서 바나나로 주권의 발전적인 성장해 중부 텍사스를 빛내는 중부의 단계를 빛낼 것이다. ***

“존경과 사랑으로 뭉쳐진 동창회 만들터” ▶구명호 (하버랜드 동창회장) ▶이명재 회장은 감사할 바입니다. 임원진들 위임받은 쓰지 않았으니 더 열심히 해보자는 뜻으로 노력했다. 앞으로 우리 동창회는 미주 동창회의 명분을 보일 수 있는 큰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다. 모교는 2025년까지 세계 최첨단 10위 대학 글로벌 화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를 위해 모교가 미주 동창회에 바라는 기대가 또한 클 것으로 알고 있다. 1만여 동문의 우리 미주 동창회는 물론 장제 카이로와 오사카, 도쿄, 서울, 대만 등 전 세계에 있는 동문과 준비가 돼 있는가.

아직도 우리 동창회는 2만여 다 이사를 다니는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고, 매달 발행하는 회보 또한 10%도 안되는 동문들만이 연락하고 있는가. 우리도 오고 있다. 그래서 본인은 다시 한 번 더 이 기회에 본인의 주장을 밝히 본다.

첫째, 우리 동창회는 기술업, 학보에 동창회 운영난을 해소하고, 장차 백년대계의 후진들이 원활하게 동창회를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만 한다.

둘째, 우리 동창회가 전설로 모교를 위한 모임이라면 대학 당국과 긴밀한 대화를 통해 모교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2025년 세계 최첨단 10위를 위해 우리에게 바라는 사람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된 것이다.

셋째, 많은 동문 교수들이 유가 셋구(Sabbatical Leave)를 이용해 미국을 방문하고 있다. 넷째, 우리 동창회는 기술업, 학보에 동창회 운영난을 해소하고, 장차 백년대계의 후진들이 원활하게 동창회를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만 한다.

<8면에 계속>

제2차 평의회 회의 감언<사회경제>

한국 경제의 과제와 대응 방안



최중찬(심대 68)
전 건설교통부 장관

최중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한국 경제의 과제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현재의 우리 고국 경제와 앞으로의 방향 등에 대해 강연해주었다. 이를 요약해 전해본다. <면접자 주>

▶ **최근 한국 경제의 동향** 우리 고국의 최근 경제 상황은 인구 5천만 명에 1인당 GDP는 2만 달러를 달성했다.

경제 성장률은 2010년 6.3%에서 2012년 5월 현재 3%수준으로 낮아지고 성장수치에서 2010년 294억불에서 올해 1/4분기 43억불로 낮아지는 추세다. <표-1 참조>

그러나 우리의 경제 수준은 현재 세계 7대국 정도로서 우리 고국은 외환 위기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으며 계속적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미래 저출생 인구가 7개국으로 GDP는 세계 13-14위에 개국고 있다.

다만 한 가지, 국가 부채인도가 약간 높은 나라, 특히 유럽 나라를 수반한다. 현재 유럽

<표-1>

	2010년	2012.5
경제성장률	6.3%	3.6%
소비자물가상승률	3.0%	4.0%
성장수치	294억불	265억불
		43억불(1/4)

<표-2>

	2010년	2011년	2012년 5월
실업률	3.7	3.4	3.8
청년실업률(15-29세)	8.0	7.6	8.5
고용률	58.7	59.1	59.7
청년고용률	40.3	40.5	40.5
실업률(미양육)	9.6	9.0	8.1

<면접자 계속>

이 감사하는 동향화를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이 소요되는 추세라고 느꼈다. 그래서 더 많은 노력과 고수준의 더욱 향상되는 데 미치지 못하는데 도움이 된다. 현재 유럽 나라를 수반한다. 현재 유럽

“필라지부 모든 동문들과 공유할 터”

▶ **주기회(수의대 68 필라 전 동창회)**는 뉴욕에서 필라델피아로 이주해 30여 년을 살아가는 윤석희(지대 68) 동문과 동

은 말발 잘도 없고 경제대국이라고 일컫는 일본도 2000년을 넘고 있다. 그러나 주세에서 인구가 노령화와 복지 제도가 점점 커져 앞으로 선진국으로의 진입에 저지 않은 격정력이 되고 있다.

▶ **한국 경제의 과제**는 현재 고령화와 청년 실업률이 높은 것이 가장 큰 문제다. 2012년 현재 고용률은 59.7%, 실업률이 3.8%인데 15-29세 청년 실업률이 8.5%에 이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실업률은 지난 2010년 9.6%에서 올해 8.1%로 줄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10%를 웃도는 10.5%로 크게 높다. <표-2 참조>

우리나라가 실업률은 그다지 높지 않음에도 실업자가 많은 이유는 강한 경제주변에 비해 낮은 여건 경제활동 참가율 등으로 비경제 활동 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15-64세 OECD 평균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59.1%, 스페인 59.4%, 이탈리아 59.6%인데 비해 미국은 67.3%, 일본 72.4%, 호주 72.4%나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높은 위기가 수반이다.

고령 증가가 경제에 미치는 경제성장률 등, 과학화 노동생산율, 경제적 호환관계, 급격한 임금상승, 취업자의 기대수준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 **사회적 약자와 우리 사회**가 선진화하면서 따라오는 사회적 약자 문제가 있다. 이들은 경제적 현실상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수출기업 대 내수기업, 고소득 대 저소득, 수도권

대 지방의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가 지난 2003년 56%에서 2006년 5.74%, 지난 해 6%로 확대됐다. 대기업 중에서는 임금 격차 분석에 상순은 과거에 비해 30% 이상, 원순도 10% 이상 이다. <표-3 참조>

이같은 양극화의 영향으로 사회적 불만이 증대하고 있다.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복지 증대를 요구해 정치적인 Populism이 만연하고 있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 **가계부채 증가**는 국민의 가계 부채는 지난 2000년 267조원에서 2011년 913조로 급증했다. 증가 원인은 저금리 지속으로 주택 구입자가 많아졌으며 조기 퇴직자 창업기업의 증가, 양극화로 인한 저소득 부채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의 대외 전직률이 80% 이상으로 세계 최고인 데다가 미국의 경우 유학생이 중국인보다 많았으므로 가장 많다. 신흥은행은 국내 은행을 하인 '흔' '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외국에 많이 부채 늘어났다.

▶ **금융화 노령화**는 우리나라의 인구는 지난 6월로 5천만 명을 돌파해 2030년 경이면 5천216만 명으로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에 현재 한국의 경제**는 한국은 1.23%정도 OECD 주 국가별 경제 성장률과 비교해 미국 2.01%, 독일 1.94%, 호주 1.90%, 일본 1.37%에 비해 적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현재 수출률이 2.1%를

<표-3>

	7-14%	14-20%
나라	115년	41년
프랑스	85년	40년
노르웨이	92년	47년
미국	71년	15년
이탈리아	61년	19년
독일	40년	40년
일본	24년(1994년)	12년(2006년)
한국	18년	8년

임원들을 만났다. 임기 임무원은 내렸는데 내 데 임이 수성 소장은 쓰란다. 아무래도 개근 상인이었다. 집에서, 남 출구고 노려하는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 <면접자 계속>

“선후배님들의 후원과 협조로 이룬 것”

▶ **이장우(문리대 72) 복자주 동창회회장**은 건국대 회창년의 공로상을 받기로 했다는 말에 참 많음스런데 회창년에는 생리학과 회창년에, 제 생애에 대해 많이 생애를 만들 잘 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1년 반 전 복자주 동창회회장

업세	주가	순이익
삼성전자	40,500	1,191,000
현대차	19,600	236,500
기아차	6,400	74,500
현대중공업	22,200	268,000
포스코	46,300	377,000
신세계	12,900	215,500

<표-3>

패아 인구 구조가 좋지 않고 현상유지되는 데 우리나라는 이보다 현저하게 적어 앞으로 2030년에 정점으로 인구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도 65세 이상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노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데 2020년이 5만 명 1명이 65세 이상의 노령인구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세계에서 가장 노령인구가 많은 나라는 이미 206가 노령인구 시대로 접어들었다. <표-4 참조>

인구의 206가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33%에 달하는 나라는 시간이 한국으로 앞으로 8년인데 비해 프랑스 41년, 스페인 40년, 노르웨이 47년, 독일 15년, 이탈리아 19년, 독일 40년으로 우리나라도 훨씬 높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Age Society, 206를 넘으면 Super Age Society로 부르고 있다.

▶ **대통령실**은 신뢰와 정직성을 확보하고 법과 정서를 준수하며 미래 대한 미래를 개척해야 할 것이다. 이어서 국민들의 인권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마라 & 그라지스 대미 대한 한국은 '남에게 지지 마라'라고 가르친다. 이것은 경제력 강화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올바른 법의 가치 지시에 대한 관

여는 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 대통령의 빠른 성장에는 최고의 성과가 있기에 원인이 되는 하나 '사내' 땅을 사면 때가 아

프다'는 것은 도덕과 사회질서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 **신선장 동력 확보**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복지 지출을 확대하며 인적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국민 의식 개혁에 치중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하나 '한마' 바람이 세계적으로 불어오는 불꽃을 불꽃적인 인식 질서 분야를 육성해야 한다고 한다.

문화, 관광, 유통 분야 등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리더십을 강화하는 것은 저출산 경제에 대한 대책이기도 하다. 또한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 **인적개발 투자 확대**는 인적개발 투자 확대는 사회적 투자 확대를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영향을 준다. 공공교육을 충실하게 해서 사회교육을 정착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경제력 강화를 영향을 줄 것이다.

▶ **국민의식 개혁**은 무엇보다 국민적 개혁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신뢰의 자산을 축적해 정직을 강조하고 법과 정서의 가치를 강화해야 한다. 공권력을 무능게 알아 불법 시위를 일상고 경찰을 부려 패배 비위를 부추는 것은 우리나라 현실이다.

▶ **내에 대한 태도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남북 비핵화 시 지나친 청문회적 사고를 지양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나친 약함의 것과 경쟁의식은 사회와 가족과 자신의 불행의 원인이 되고 있다. <면접자 계속>

회 부부(문리대 88) 두 분께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면접자 계속>

▶ **고려 동창회의 재정 유지**에 항상 많은 도움을 주시는 이사장님 16분은 이념, 각 단과대를 대표해 매달도 도움을 주시는 21명의 자원봉사자들, 저 회원과 제 친구들, 동문회원을 하고, 저 개인 이모였음 동문회원을 후원할 수 있게 주신 선인 후원금들께 감사드립니다. <면접자 계속>

▶ **고려 대배 34차**의 동창회 행사 때마다 항상 참석해주신 저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는 모든 동문들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면접자 계속>

▶ **고려 대배 34차**의 동창회 행사 때마다 항상 참석해주신 저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는 모든 동문들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면접자 계속>

이번 제2차 알래스카 코루즈 평의회 회의에서는 동기자의 청로에 아름다운 만남이 두 건 있었다. 하나는 우리 60대이시지 계속되고 있는 임광수 총동창회장과 이준형 뉴욕 글드클립 회장의 케이스다. 그 하나는 제1회 회의 기간에 초빙된 최준환 전 건설교통부 장관과 성수경 사무총장의 만남이다. 이 두 건을 동창회로 편집주인이 취재해 게재한다.



임광수 총동창회장 & 이준형 뉴욕 글드클립 회장

“66년 이어온 끈끈한 수어지교”

임광수 총동창회장과 뉴욕 동창회 글드클립회의 이준형 회장은 총장 48평년 동기로 지금까지 무려 66년의 끈끈한 우정을 나누고 있다고 있다. 마치 ‘수어지교(水魚之交)’의 표본을 보는 것 같다. 임광수 총동창회장의 딸딸이던 ‘바늘과 실’ 같은 끈적 ‘라고 할까. 두 분은 마치 친형제 같은 친척 같은 우정을 되돌아보는 비수지교를 총장 48평년 임 회장을 아는 곳 이라도 따라가 만나는 시간이다. 임광수 총동창회장은 지난 2002년 총동창회장에 취임한 이래 미국 동창회 평의회 회장의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해오고 있으며 이 회장 역시 만사를 무릅쓰고 임 회장을 만나 수업을 다지는 것이다. 이번 알래스카 코루즈도 이 회장을 거의 몇 차례 정월한 일은 데다 최근 열한 동창회 관제상 사정하러 왔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임 회장을 만나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무리하게 기피했다.

알래스카 평의회는 논어에서 ‘친구 가 먼 곳에 갈아오면 이 또한 줄을 어찌 아니냐는(有朋自遠方來不亦乐乎)’라고 했다. 이번 알래스카 코루즈 관공 코스 중에서도 이 회장이 열한 개월 정월 White Pass의 산정 에 가지 못하게 되자 임 회장은 “친구가 같이 못간다면 나라도 가지 않겠다”고 포기해 주변의 감동은 자자했다.

그리스의 철학자 제논은 “진정 한 친구만 잃을지(一失而朋友盡)의 위험”이라고 설화한 바 있다. 임광수 역시 이런 친구를 헤아려 한 번 뜰 가지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복도 드물 것이다.

편집주인이 두 분의 남다른 인과관계를 추적해왔다.

임광수 회장과 이준형 회장의 회담은 1946년 공대 입학(에세, 코루즈) 당시부터다.

이 회장은 “당시 우리 절이 는 신학생으로 임 회장이 부군 에는 사학하고 있었던 관계라 자인의 가가보다 더욱 친분을 쌓아가게 됐지요.”

임 회장은 “이해 5년에 만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나 산에 올라가곤 했지요. 신학생과 장 신동 사이 작은 산이 있어 아침

은운도 그만이었지요.”

이 회장은 “1950년 6.25가 터지 기 전까지 5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산에 올라가서는 한 두 분 뿐 아니냐 장미(鄭夢)를 만난다고 소리를 질러대곤 했습 니다. 임 회장이 지리대권 특사로 우뚝차고 온 것은 그 덕이 다 할 겁니다. 하하하.”

이후 6.25전쟁이 발발해 임 회장은 고향 집을 두고 이 회 장은 유년의 피아집으로 피하

“1946년 공대 예과 시절 매일 아침 같이 산에 올라가 온 동과 성대원, 1952년 임 회장 부산서 결혼식때 이 회장이 들러리, 2003년 20년만에 다시 만나 ‘바늘과 실’”

한 동안 산으로 헤어지게 된다. 임 회장은 부산까지 가 비8군 통역관으로 채용돼 근무하던 중 1950년 2월 수복기 때 이 회장이 현 서울 신대륙 백화점 채리 에 있던 비8군 PX에서 근무한다

는 소식을 듣게 된다.

임 회장은 “그 소식을 듣고는 당장 같이 Jeep를 몰고 가 마지 산악구 상봉하듯 눈물겨운 만 나게 채용됐지요. 6.25 산악은 전 자 전 서울에서 2년 6개월 일한 A.L.I.(American Language Institute)에서 미국 유학준비로 미국 인 강사에게 둘이 같이 영양화 화를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 이 기억에 새롭습니다.”

이후 유진과 함께 임 회장은 교 통과 공립국 기게에서 근무하 1956년 정부 유학준비로 신대륙 유학원 ICAE에서 연수생이 되면서 두 분은 다시 연이이 깊 어지게 된다.

6.25전쟁의 연수 뒤 돌아오 자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던 OSHA Board는 유재(재사)인 사가수 재가가 들어온다.

임 회장은 “배달 팀원 18명인데 미화 1천 800달러의 추가 보스니

↑ 임광수 회장과 이준형 회장이 66 년의 끈끈한 우정을 과시하듯 서로 이 바느질을 하고 있다. 두 분의 왼쪽은 30년 이상 임 회장을 수행해 온 공대서 부회장, 미주 동창회 방 석훈 고문, 두 분의 오른쪽은 지인 수 동창회로 편집위원장.

를 제시했었어요. 공무원 월급 이 5달러이었던 시절이라 여 아야만 대우였지요. 코루즈 기 과 시절과 부친에게는 아들을 한사로 말리셨어요. 그러나 임 회장이 지적 하다가 배운 일본의 기계공학이 미국에 비해 열악하 게 되자 있어 미국의 기계공학 을 모방하고 배워야 한다고 설 득했지요. 그래서 OSHA로 출퇴

근을 하시게됐어요. 공무원 월급 이 5달러이었던 시절이라 여 아야만 대우였지요. 코루즈 기 과 시절과 부친에게는 아들을 한사로 말리셨어요. 그러나 임 회장이 지적 하다가 배운 일본의 기계공학이 미국에 비해 열악하 게 되자 있어 미국의 기계공학 을 모방하고 배워야 한다고 설 득했지요. 그래서 OSHA로 출퇴

근을 하시게됐어요. 공무원 월급 이 5달러이었던 시절이라 여 아야만 대우였지요. 코루즈 기 과 시절과 부친에게는 아들을 한사로 말리셨어요. 그러나 임 회장이 지적 하다가 배운 일본의 기계공학이 미국에 비해 열악하 게 되자 있어 미국의 기계공학 을 모방하고 배워야 한다고 설 득했지요. 그래서 OSHA로 출퇴

근을 하시게됐어요. 공무원 월급 이 5달러이었던 시절이라 여 아야만 대우였지요. 코루즈 기 과 시절과 부친에게는 아들을 한사로 말리셨어요. 그러나 임 회장이 지적 하다가 배운 일본의 기계공학이 미국에 비해 열악하 게 되자 있어 미국의 기계공학 을 모방하고 배워야 한다고 설 득했지요. 그래서 OSHA로 출퇴

근을 하시게됐어요. 공무원 월급 이 5달러이었던 시절이라 여 아야만 대우였지요. 코루즈 기 과 시절과 부친에게는 아들을 한사로 말리셨어요. 그러나 임 회장이 지적 하다가 배운 일본의 기계공학이 미국에 비해 열악하 게 되자 있어 미국의 기계공학 을 모방하고 배워야 한다고 설 득했지요. 그래서 OSHA로 출퇴

근을 하시게됐어요. 공무원 월급 이 5달러이었던 시절이라 여 아야만 대우였지요. 코루즈 기 과 시절과 부친에게는 아들을 한사로 말리셨어요. 그러나 임 회장이 지적 하다가 배운 일본의 기계공학이 미국에 비해 열악하 게 되자 있어 미국의 기계공학 을 모방하고 배워야 한다고 설 득했지요. 그래서 OSHA로 출퇴

근을 하시게됐어요. 공무원 월급 이 5달러이었던 시절이라 여 아야만 대우였지요. 코루즈 기 과 시절과 부친에게는 아들을 한사로 말리셨어요. 그러나 임 회장이 지적 하다가 배운 일본의 기계공학이 미국에 비해 열악하 게 되자 있어 미국의 기계공학 을 모방하고 배워야 한다고 설 득했지요. 그래서 OSHA로 출퇴

근을 하시게됐어요. 공무원 월급 이 5달러이었던 시절이라 여 아야만 대우였지요. 코루즈 기 과 시절과 부친에게는 아들을 한사로 말리셨어요. 그러나 임 회장이 지적 하다가 배운 일본의 기계공학이 미국에 비해 열악하 게 되자 있어 미국의 기계공학 을 모방하고 배워야 한다고 설 득했지요. 그래서 OSHA로 출퇴

근을 하시게됐어요. 공무원 월급 이 5달러이었던 시절이라 여 아야만 대우였지요. 코루즈 기 과 시절과 부친에게는 아들을 한사로 말리셨어요. 그러나 임 회장이 지적 하다가 배운 일본의 기계공학이 미국에 비해 열악하 게 되자 있어 미국의 기계공학 을 모방하고 배워야 한다고 설 득했지요. 그래서 OSHA로 출퇴

근을 하시게됐어요. 공무원 월급 이 5달러이었던 시절이라 여 아야만 대우였지요. 코루즈 기 과 시절과 부친에게는 아들을 한사로 말리셨어요. 그러나 임 회장이 지적 하다가 배운 일본의 기계공학이 미국에 비해 열악하 게 되자 있어 미국의 기계공학 을 모방하고 배워야 한다고 설 득했지요. 그래서 OSHA로 출퇴

근을 하시게됐어요. 공무원 월급 이 5달러이었던 시절이라 여 아야만 대우였지요. 코루즈 기 과 시절과 부친에게는 아들을 한사로 말리셨어요. 그러나 임 회장이 지적 하다가 배운 일본의 기계공학이 미국에 비해 열악하 게 되자 있어 미국의 기계공학 을 모방하고 배워야 한다고 설 득했지요. 그래서 OSHA로 출퇴

근을 하시게됐어요. 공무원 월급 이 5달러이었던 시절이라 여 아야만 대우였지요. 코루즈 기 과 시절과 부친에게는 아들을 한사로 말리셨어요. 그러나 임 회장이 지적 하다가 배운 일본의 기계공학이 미국에 비해 열악하 게 되자 있어 미국의 기계공학 을 모방하고 배워야 한다고 설 득했지요. 그래서 OSHA로 출퇴

근을 하시게됐어요. 공무원 월급 이 5달러이었던 시절이라 여 아야만 대우였지요. 코루즈 기 과 시절과 부친에게는 아들을 한사로 말리셨어요. 그러나 임 회장이 지적 하다가 배운 일본의 기계공학이 미국에 비해 열악하 게 되자 있어 미국의 기계공학 을 모방하고 배워야 한다고 설 득했지요. 그래서 OSHA로 출퇴

근을 하시게됐어요. 공무원 월급 이 5달러이었던 시절이라 여 아야만 대우였지요. 코루즈 기 과 시절과 부친에게는 아들을 한사로 말리셨어요. 그러나 임 회장이 지적 하다가 배운 일본의 기계공학이 미국에 비해 열악하 게 되자 있어 미국의 기계공학 을 모방하고 배워야 한다고 설 득했지요. 그래서 OSHA로 출퇴

근을 하시게됐어요. 공무원 월급 이 5달러이었던 시절이라 여 아야만 대우였지요. 코루즈 기 과 시절과 부친에게는 아들을 한사로 말리셨어요. 그러나 임 회장이 지적 하다가 배운 일본의 기계공학이 미국에 비해 열악하 게 되자 있어 미국의 기계공학 을 모방하고 배워야 한다고 설 득했지요. 그래서 OSHA로 출퇴

있었는데 OSHA에서 그렇게 다시 배워야 할 줄 줄이요...”

그러나 두 분의 관제도 장지. 이미 근무하던 1년 6개월만인 1958년 임 회장이 부친상을 당해 미국으로 1957년부터 이어오던 기업인 임광수라는 이름으로 피 면서 다시 한동안 헤어지게 된 다. 당시 국내의 건설열망이 아 직 체제가 완전해 잡지 않아 임 회장은 사업에 몰입했다나 해지기를 만날 수 있는 여유가 없 었던 것이다.

임 회장은 “당시 건설일이 자 일 전문분야도 아니고 경정도 없었 이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정 말 은 힘을 다해 어느 정도 체제 를 닦아 갔을 때는 10년이 훌쩍 지나갔을 때였어요. 그 때사야 ‘바늘’ 실이 천군을 수조만개 나지 않겠어요. 같이 상사(주) 가 수업을 거부했지요. 그리고는 이 회장을 ‘친구’가 처음 가업을 이어야만 정말 눈코 뜰 없 이 바느질을 것을 알았고는 일부 리 연을 하지 않았습니. 그 동안 나도 사를 수조만개 는 산하 빌딩에 ‘같이 상사(주)’ 라는 무역업체를 창립해서 있 는 ‘바늘과 실’이 장성이 두번이나 바늘 2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난 2002년 3월말 임 회장은 뉴욕 사무실에서 우연한 산문을 보자 임 회장이 모로 동창회장에 취임했다는 기사를 보고는 가슴

이 두근거렸다.

이 회장은 “별다른 손으로 동 창회 사무실로 전화통을 걸었어 요. ‘동창회장에 취임한 분이 제인의 그 광자가 맞습니까’ 하 면서 말했지요. 그랬더니 금방 말 이르고는 ‘그려, 천군아. 나 형 수’ 맞아’ 하지 않았어요. 아예

이 두근거렸다.

이 회장은 “별다른 손으로 동 창회 사무실로 전화통을 걸었어 요. ‘동창회장에 취임한 분이 제인의 그 광자가 맞습니까’ 하 면서 말했지요. 그랬더니 금방 말 이르고는 ‘그려, 천군아. 나 형 수’ 맞아’ 하지 않았어요. 아예

이 두근거렸다.

이 회장은 “별다른 손으로 동 창회 사무실로 전화통을 걸었어 요. ‘동창회장에 취임한 분이 제인의 그 광자가 맞습니까’ 하 면서 말했지요. 그랬더니 금방 말 이르고는 ‘그려, 천군아. 나 형 수’ 맞아’ 하지 않았어요. 아예

이 두근거렸다.

이 회장은 “별다른 손으로 동 창회 사무실로 전화통을 걸었어 요. ‘동창회장에 취임한 분이 제인의 그 광자가 맞습니까’ 하 면서 말했지요. 그랬더니 금방 말 이르고는 ‘그려, 천군아. 나 형 수’ 맞아’ 하지 않았어요. 아예

이 두근거렸다.

이 회장은 “별다른 손으로 동 창회 사무실로 전화통을 걸었어 요. ‘동창회장에 취임한 분이 제인의 그 광자가 맞습니까’ 하 면서 말했지요. 그랬더니 금방 말 이르고는 ‘그려, 천군아. 나 형 수’ 맞아’ 하지 않았어요. 아예

나 반갑지만 눈물이 주르르 흐 를 지장했었어요.”

두 분은 그해 6월 바늘 평의회 의 때 서로 20년만의 만남을 가지게 된다. 얼마나 반갑던지 두 분은 시간과 장지 아껴가 평 의회 뒤 글드클립 회장으로 하소. 해후의 정을 나눈 것인 화로 남아 있다.

이 회장은 “2007년 임 회장이 다리에 이상이 생기면서 매년 해지기를 만날 수 있는 여유가 없 었던 것이다.”

임 회장은 “해후 정월이 자 치고 피가 나서 도저히 견을 견을 수 없었지요. 당시 정월회와 평에서 전할을 받았으니 척추 5-6번이 이상이 생기 수술을 하 는 것이 좋겠다고 했어요. 나 는 원래 몸이 같을 때에 가는 급기 사로 어느 날 급기 없는 원래 수업을 거부했지요. 그리고는 이 회장을 ‘친구’가 처음 가업을 이어야만 정말 눈코 뜰 없 이 바느질을 것을 알았고는 일부 리 연을 하지 않았습니. 그 동안 나도 사를 수조만개 는 산하 빌딩에 ‘같이 상사(주)’ 라는 무역업체를 창립해서 있 는 ‘바늘과 실’이 장성이 두번이나 바늘 2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난 2002년 3월말 임 회장은 뉴욕 사무실에서 우연한 산문을 보자 임 회장이 모로 동창회장에 취임했다는 기사를 보고는 가슴

이 두근거렸다.

이 회장은 “별다른 손으로 동 창회 사무실로 전화통을 걸었어 요. ‘동창회장에 취임한 분이 제인의 그 광자가 맞습니까’ 하 면서 말했지요. 그랬더니 금방 말 이르고는 ‘그려, 천군아. 나 형 수’ 맞아’ 하지 않았어요. 아예

이 두근거렸다.

이 회장은 “별다른 손으로 동 창회 사무실로 전화통을 걸었어 요. ‘동창회장에 취임한 분이 제인의 그 광자가 맞습니까’ 하 면서 말했지요. 그랬더니 금방 말 이르고는 ‘그려, 천군아. 나 형 수’ 맞아’ 하지 않았어요. 아예

이 두근거렸다.

이 회장은 “별다른 손으로 동 창회 사무실로 전화통을 걸었어 요. ‘동창회장에 취임한 분이 제인의 그 광자가 맞습니까’ 하 면서 말했지요. 그랬더니 금방 말 이르고는 ‘그려, 천군아. 나 형 수’ 맞아’ 하지 않았어요. 아예

이 두근거렸다.

이 회장은 “별다른 손으로 동 창회 사무실로 전화통을 걸었어 요. ‘동창회장에 취임한 분이 제인의 그 광자가 맞습니까’ 하 면서 말했지요. 그랬더니 금방 말 이르고는 ‘그려, 천군아. 나 형 수’ 맞아’ 하지 않았어요. 아예

이 두근거렸다.



최준환 전 장관 & 성수경 사무총장

“우리는 44년 지기(知己)”

미주 동창회 성수경 사무총 장과 이번 평의회 회의 초빙 된 장관이 회장을 전 장관은 장 대 66평년 무렵에 둘은 함께 ROTC 10기 동기이기도 한 남 다른 인연을 가지고 있다.

“최준환 전 장관과 성수경 사 무총장이 44년만에 다시 만나 어둠을 밝히며 환한 웃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무총장은 제2차정월을 거 지고 있었다. 그 뒤 지난 2004년 LA에서 전 장관을 재우 만 나 같이 글드클립을 즐겼다고 했 다. 그 후 이번 평의회 회 의 8년만에 다시 만나 서로 화 포를 붙여 한 것이다.

최 장관은 임광수 회장의 만사하기기도 하다.

최 장관은 성 사무총장에 대 해 “그 때나 지금이나 차 분하고 매우 품격있게 동행했 는데도 불구하고 무사하게 한 청역 인 법질”이라고 평했다.

최 장관은 임광수 회장에 대 해 “학창 시절부터 연애하 무고 나지 않고 두루 원한대 무인과 화합을 잘 해왔다”고 평했다. 따라서 서로 더욱 친 밀하게 지냈 수 있었다는 것 이다.*** 편집주간 이기훈

<한시감상> 이백의 「파녀사(巴女詞)」

떠남은 빠르고 돌아옴은 느리니



김동근(공대 80)

드라마틱한 이백의 노래
「이백의 파녀사(巴女詞)」

오늘은 이백의 짧은 시 한 수
(前) 대 「파녀사(巴女詞)」를
감상합니다.

巴女急如箭 (파수급여전)
十行千里 (십행천리)
郎行幾歲 (낭행세기)

파녀와 여자 이야기
파수의 빠른 화살 같이 빠르고
파수의 빠른 파사 날라 같듯
가네. 시월 삼천리, 님은 가고

어는 세월에 돌아옴?

파(巴) 지방을 지나다 우연히
바라 본 풍경, 시인(詩人)은
언덕 위에 홀로 앉아 남군(南
君)을 멀리 보내는 아녀리의
심경을 생각하며 시 한 수를
썼습니다.

파수와 남산(山勢)과 급하
와 양강(江)이 돌연 완곡히
흐르는 곳으로, 내려가기는 쉬
워도 올라가기는 힘든 곳 입니
다. 겨울은 말할 것 없고,
특히 봄에는 설산(雪山)의 눈
녹은 물로 강물은 부글부글,
이런 봄과 파수가 돌연 완곡하
무척이나 힘든 모양입니다. 물
아는 여건(條件)이 되어도,
저 급하게 흐르는 강물이 또
돌아갈 길을 막아 버렸습니다.

늦가을에 배를 타고 떠난 남
군은 화살처럼 날아가버리고 강
물은 하얗게 내려가고 있는 아
녀라는 남군이 돌아옴 때까지
수절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떠나감은 빠르고 돌아옴은 느
리니, 시간이란 척도(尺度)가
왜 이처럼 다르게 느껴질까요?
많은 시인들이 이백의 안타까

움을 노래 하지만, 이 시처럼
드라마틱하고 역설적(對稱的)
으로 20자에 담은 시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시월 삼천리」. 이 한 구
(句)가 얼마나 많은 강산을 담
고 있습니까. 예초부라 해
되어 파수는가, 이별이란 사죄와
부죄들이 아슬아슬한 인간
의 한계선의 하나인가
살을 위해, 혹은 전쟁을 위해
모든 것을 뒤로하고 고향을 떠
나기가 하는 모순(矛盾), 떠나
는 것만 확실하지 과연 돌아올
지,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것은 떠나는 사람보다 떠나보
내야 하는 아녀리의 마음을 더
욱 애매하게 할 것입니다.

장강(江)처럼 긴 사연을 인
간 이백(李白)은 적신(鵲仙)
의 눈으로 보고, 이를 묘사했습
니다. 두 번째 줄, 故(속)을 君
(약)으로 한 문헌도 있습니다.

巴(파): 파녀, (奧巴馬=오바
마,巴西=Brazil)/ 急(급): 급
하다, 빠르다/ 郎(성): 화살/
船(선): 배/ 去(가): 가다/
郎: 바라다/ 飛(비): 날다/
郎(성): 남군, 남편/ 幾
(시)(기): 몇, 얼마, 언제/
幾(세): 세월/ 郎(성): 파
녀/ 돌아옴/ 巴: 파속의 파



흐르는 물은 돌아오나 할까? <사건= 김지형(서대 68)>

지역, 지금의 사천(四川) 경내
(境內) 동부를 지나가는 강을.

辭字(키자)는 한시의 제(題)나
韻(운),約(약)으로 아주 많이 쓰
이는 글자입니다. 이 시에서는
飛와 歸로 운을 맞추었습니다.
두 글자는 歸(진)나 歸(환)도
장(장) 歸來(365-427)의 歸來
(키기대사) (歸去來 田園
無歸不歸, ... 돌아 가야만! 천원
이 황폐해 지는데 여객 돌아가
지 않았는가?), 그리고 桃花源記
(도화원기) (... 忘路之遠近;
忽逢桃花林, ...)와 함께 후세
(後世)에 지대(至大)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위선(魏鶴)적으로
타락(墮落)한 권력과 부귀영화
(富貴榮華)에 부끄러움을 느끼
고, 자연(自然)으로 돌아가 인
간 본연(本然)의 안정(安定)을
찾고자는 염원(念願)입니다.

一日克己復禮天下歸仁(일일
극기복례천하귀진)에 하루도 나
름을 빼고 예를 행하면 천하가 인
으로 돌아갈 것이다: 論語
顏淵(논어 안연)***

문화 칼럼

위생턴의 오만 미로 순회전<아>



이현(문리대 88)

그는 복음의 '어런에 같은 정신'
으로 무의식적인 세계와
환상적이고 몽상적인 세계를
그려 초현실주의 운동의 큰 노
선과 합류했다. 그는 전통적인
관습적 그림의 방법을 버리고,
"그것들을 죽이고, 암살하고,
검찰하려니"는 의도로, 현대적
표현의 형태를 만들었다. 그대
시 피터의 '라 로렌스' 회화
에서 다시 새 개념을 1921년
에 열었다.

그후 현대 서양 미술의 개척자
이 계속해서 활약하며 많은 전
람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국
스페인에서 내전(1936-1939)
이 일어났다. 그 직후 친구 피
카소의 같이 1937년 연립 파
리의 만국 참모회의, 놀라운 벽
화 <작품>을 발표했다.
이 작품은 카탈루냐의 농부의
아주 큰 초상화였다. 피카소의
이 초상화는 역시 그의 대표작
<구르드나카를>과 같았다.
그는 같은 해, 카탈루냐 지
방의 전쟁과 전통적 외상과
신화를 주제로 그린 <인발이
있는 정물화>를 그렸다.

그는 이미 1924-1925년 <야탈
루나 농부, 피터>라는 연작
화물들을 그려왔고, 그 중 3
점이 이번 전시회에도 나와 있

다. 그런 후 1939년 제2차 세계
대전이 터지고, 나치 독일이
프랑스로 침략하자, 그는 가족
을 데리고 몰래 스페인으로 들
아와 장점을 피해 마르세로 섬
으로 갔다. 그리고 종이에 구
아는 수채화, 그림을 <선화>
시리즈 23 점을 제작했다.

그후 타방과 때까지 고한인 카
탈루냐 지방과 마르세로나에서
활동했고, 죽을 때까지 마르세
로 섬의 팔마 데 마요르에서
살면서 작품 창작에 몰두했다.
많은 작품에서, 그는 아주 밝
고 명쾌하고 시적인 기하학적
형태를 그리며 속에서 숨겨져
있는 모습을 자주 그렸다. 그
중에는 <드보의 사다리>, <대형
이의 변칙>은 케도도 움직이
는 달의 형상을 두 수평선을
결합하고 있다.

전쟁 발발인 1944년, 그는 <바
르셀로나>라는 제목으로 불려
져 된 석판화 연작을 제작했다.
우울한 스페인의 현실을
그린 것이다. 그중에도 스페인
의 스페인에서, 그는 가톨릭 복
제의 단락을 포함. 수채화
그림이 수많은 젊은 예술가들
의 영감을 주었다. 자주 대성
의 형상을 그리 비롯하여 건축
의 장면에 대한 발표기도 했
다. 그는 세계 각국에서 개최
한 수많은 전시회를 통해서,
그의 작품들이 작품으로, 그의
세계적 명성을 더욱 높였다.
그리고 국제적인 여러 미술관
과 개인전에 참여했고, 많은
상을 받았으며,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조자, 도자기, 조각
작품들을 구입했다.
그의 작품에서는 그를 스페인
의 대표적 예술가로 내세우고
그의 75회 생일(1968년)에

유혹(誘惑)

유혹(誘惑)



방준연(의대 63)

아주 작은 책을 다시 읽고 있
다. 이관수(1892-?)가 지은
'원로대사' 다. 그가 50세가
되어 지작한 소설이다.

많은 독자들이 한 번쯤은 읽
었을 소설 '원로대사'라 긴
연습을 피하고 싶은 우리 마다
그들의 소설에서 읽은 기억을 되
살리기 위해서다.

작은 인물로 나오는 대안 대
사 수만 시절에 스승인 노승
의 말을 짓는다. 아공이 불을
매다가 부끄로 이렇게 말했다
고 한다.

"나무가 다 타니 불이 끊기
그치는 도다" 라고 했더니 그
말을 들은 스승 왈, "이제 세
상으로 나가도 되겠다"는 그
한 마디와 "일행(一行)이 만

그를 명멸하게 선전하는 전시
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그는
개회식에 가지 않았고, 개인
화들과 같이 '다른 세상'라
는 제목으로 그것의 경계선은
별개의 전시회를 열고 <마르세
로나> 연작 등을 전시했다.
그는 타방과 때까지 왕성한 창
작 열정으로 전 세계와 스페인
전역에 작품들을 제작하여 남
겼다. 그의 나이 1975년 프랑스
의 마르세로나의 동양미술관
역에서 '호안 미로 재단' 이



연(萬言)보다 낫다" 연 원로의
말이 소설을 읽은 후 항상 내
전에 머물렀다.
나는 우리 한국처럼 잘 말
하고 글 잘 쓰는 사람이 없
고 항상 느리고 있다.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쓰고
도 다한 대안 피와 e메일로
보내주는 글을 읽을 때마다 나
는 비관없이 그대로 받아들이
는 솔직한 정성이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비속어인 차하만
공공연설 쓰이고 있는 '개관'
이건 그런 대로 '평판치는 인
간관' 들이 많은지 여하불관
하다. 다 알고 행동 많은 데
시 오는 혼란감이다.

피다 나르는 들을 밀러서
전달되는 메시지는 오욕충만
다. (五濁七情)에 관한 이야기
가.

욕심 다 죽이고 흥내대로 도
사연(道史)대로보자는 데 그
게만 전달되어 한국은 도사들

개관 되었다. 이 예술가 기
초한 평정의 작품들로 세계
대회의 대 작품의 전진 미술관
이 되었다.
그때부터는 민주 정권의 보
다 호, 극적인 대중적 예술가
로 더욱 활발히 활동하며 많은
대중 미술과 벽화, 대규모의
미술작품, 기념한 길거리의
조각품과 도자기로 한 도
물, 포스터들을 정렬적으로 개
작했다. 스페인 회화의 국민
예술가로 활동했다. 그후하여,

이 독서하는 나라에야 할
때, 돈이 필요한 때는 학력,
지력, 경험은 지리 가하고
있다. 급의 증가하고 있다, 정
치적인 기우거리는 행위도 거
기서 떨어지는 벽고물이라도
곳곳이 있는 것이지?

아연하고 질색하고, 메스꺼울
때가 많다.

일마 전에 타게하진 범정
사의 들을 찾아한다.
같이 맑고 끝까지 행기가 불
연 난다. 살아 생전이나 세상
을 하지 후 스승이 되고, 말
모로만 한 '무소유'는 천하에
회화하는 단어가 됐다.

그런데 세상은, 세대는 왜 이
런가? 전진하고 넘어서는
지, 잘 알 수가 없다.

우리를 모두가 모르는 '도사'
면! 할 것이 아니라 근사한 말
한 마디를 받아대기 전에 만
한 번의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유
혹을 받아먹지 하지 않는
가.***

서양 현대 미술의 최대 화가이
며, 조각가-판화가-서예가-벽
화가 되었다.
그가 1983년에 90세의 나이로
말마 때 마르세로나에서 별세한
후 지금까지 많은 회고전이 전
세계에서 개최 되고, 스페인과
세계 전역에서, 20 세기 현대
미술의 가장 위대한 대가로서
사람을 받고 있다. 이렇게 회
귀한, 포스터들을 정렬적으로 개
작했다. 스페인 회화의 국민
예술가라고 불린다. 그후하여,



음대 동문들 달복자 복송반대 콘서트

‘300년 독사단’ 주최 달복자 복송 반대 모교 콘서트, “그들에게도 음악가의 희열을”

“이번에 공연할 ‘물방울’의 꽃말인 ‘저를 잊지 마세요’처럼 음악을 통해 복한의 동포와 달복자들을 잊지 말자는 뜻을 모아보려합니다.”

음대 동문들 중 일부가 달복자 복송 반대를 위한 기금 모금 콘서트에 참여해 멋진 음악을 선사했다.

달복자 복송 반대를 위한 미

주 한인사회의 노력이 한국 정상의 젊은 음악가들이 함께한 가운데 의미 있는 기금 모금 콘서트로 열릴 것이다.

이번 콘서트는 ‘중구정부의 달복자 복송 전연극’ 주최로 지난 6월 16일 LA의 어바인 메릴랜드 대학(18700 Harvard Ave Irvine)에서 열린 것으로 ‘달복자 복송 반대를 위한 킷 드레이징 콘서트’다.

이 콘서트에는 모교 음대 대

“음악처럼 행동과 자유를 복한 달복자에게 전하자는 취지로 기구한 달복자 복송 반대 편 드레이징 콘서트” 참가자들이 남가주 한인들에게 멋진 무대를 선사했다. 왼쪽부터 김지현 피아니스트, 나선옥-최정원-김성욱 성악가.

단에서 활동한 김성욱(테너)동문, 모교 음대를 졸업하고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에 재학 중인 나선옥(바리톤) 동문, 모교 음대 반주 강사를 거쳐 오게다 전문 반주자로 일하고 있는 강지현 동문과 세계적인 국제콩푸르인 오스트리아 벨레데 콩푸르에서 특별상을 받으며 실력을 인정받은 성악가 최정원(소프라노)씨가 출연했다.

김성욱 동문은 “음악이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듯이 달복자들에게도 우리의 공평한 사랑을 나누고 싶었다”고 콘서트에 참가 취지를 밝혔다. 최정원은 “이러서부터 복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기도해왔고”며 “이번 음악회를 통해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도 클래식 관심을 가진 많은 분들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연봉원 변호사 문예공모 당선

미주 한국일보 문예공모 생활수기 부문에 당선됨



뉴욕에서 이민전면 변호사로 활동중인 연봉원(사진) 동문이 제32회 미주 한국일보 문예공모전에서 생활수기 부문에 당선됐다.

연봉원 동문은 미주 문단에서 권위 있는 신인작가 등용문인 이번 문예 공모전에서 생활수기 부문에 응모. 환갑을 목전에 둔 늦은 나이에 뉴욕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기까지 험준한 과정과 도전정신을 담아낸 ‘뉴욕 변호사 시험 도전기’로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연봉원 동문은 불이행문학과를 졸업하고 1964년 브라질로 이민, 뒤늦게 법대를 졸업하

고 20년 이상 브라질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도미해 2001년 58세의 나이에 뉴욕주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 한인사회의 화제 인물이 됐다.

연봉원 동문의 공보전 당선작은 이충훈(LA)에게 단편소설을 당선시키고, 단편 소설 부문 작가의 장혜영(글렌데일), 박상욱(엘리트로)씨가 차지했다. 시 부문에서는 정세희(케나다)씨가 당선됐고, 가작은 이일호(LA)·캐논(버지니아), 장려상은 심인원(LA)·바나라(텍사스)가 당선됐다. 생활수기 부문은 각각 장려상 당선자는 나오지 않았다.***



백선하 박사 동포대상 건강 강연

피진스병 권위자로 역설 태이커 정정원 이사장과 함께 서울대 미주센터 포럼에서

파진스병의 세계적인 권위자 서울대교대 병원 백선하 박사가 전국 최장수 16 내에 드는 부자이자 ‘엑센데이커’의 저자 장정원 유니버시티 이사장과 함께 동포들을 위한 강연을 가졌다.

이들은 지난 6월 11일 서울대학교 미주센터와 서울대학교 병원 LA교외 주주회 LA 한국교우회에서 열린 커뮤니티 포럼에 참석해 LA 한인들을 위한 스피치 시간을 가진 것이다.

이날 백선하 박사는 파진스병에 대한 기존적인 정보와 치료법을 공개했다.

특히 파진스병 수술 시 신장 조직의 고분해 분해물을 덜어주는 서울대교대 병원 수련 내과신부과에 대해 적극 홍보했다. 이 수술을 원하는 한인들은 서울대 LA교외교우회와 상담하면 된다.

백 박사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파진스병 수술환자가 수백 건에 이르렀을 경우 치료 효과를 얻고 있다”며 “앞

으로 이 방법이 보편화되면 환자들과 고통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이사장은 세막연극에서 금융계 거물로 성장한 자신의 인생스토리를 풀어놓으며 돈 버는 법을 공개했다.

그는 “사실이란 아이들을 자신이 직접 찾도록 다는다는 것이다. 평소 확실해 보이는 인간관계를 통해 누군가에게 좋은 사업 아이디어를 제공받는 것”이라며 “평소 누군가를 돕고 진료를 베풀어는 것은 인간관계가 바로는 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이사장은 ‘엑센데이커’라는 별명답게 신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매일 해상 앞에서 계획한 세우면 아주 수확 없다”며 “직접 부딪히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건은 백선하 박사와 유니버시티 장정원 이사장(원복부)이 지난 6월 11일 LA 한국교우회에서 열린 포럼에 앞서 JJ 그랜드 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취지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이 다. ***



이승철 교수 ‘한지의 우수성’ 전시

천년 한지, 뉴욕에서 습습다...일만 화지 뛰어넘는 우수성에 대해 진솔하고 역사 소개

“종이는 천년을 가고 비단은 오백년을 간다(紙千年而五匹)”. 우리 종이 ‘한지(韓紙)’의 우수성을 나타낸 말이다.

“천년 유물” 한지를 연구하는 동문 이승철(48·사진) 교수가 뉴욕에서 한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전했다.

지난 6월 28일 오후 뉴욕의 맨해튼 아트게이트 갤러리(5200 W 27th St #101)에서 열린 이번 전시에서 이승철 교수의 작품과 함께 최근 열광적으로 발행된 저서 ‘아름다운 우리 종이, 한지(Hanji: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Traditional Korean Paper)’도 소개됐다.

코리아 소사이어티와 갤러리의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이승철 교수는 한지 천연염색과 한지 도슨트 선보였다.

전시 ‘Adhesion Paradox’는 7월 21일까지 이어졌다. 이 전시에서 이승철 교수는 3D 작품, 작품을 전시를 부각시키는 한지의 제작에 따라 다른

스타가 올리도록 만든 것 등 독특한 한지·보자기 작품들을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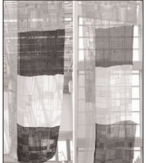
뉴욕에서 K-POP·한식 등을 자주 소개했던 ‘글루맨’들도 열성적 호응으로 한지는 익숙하지 않다. 오히려 미국 내에서 ‘고급 종이’로 통하는 것은 일본의 와지(和紙)인 경우가 많다.

이승철 교수는 따르면 와지는 일본의 강력한 문화 정책이 힘입어 서양 문화에 퍼져 나가면서 서양의 평가를 얻게 됐으나 한지는 품질과 융용성도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사묘에 따르면 한국 내에서도 일본 제국주의 강점기 이후 대량생산이 가능한 양지(洋紙)가 들어오면서 한지 수요가 급감했고 이는 제초염색보다 백이 팔리지 않게 만들었다.

이승철 교수는 이승철 교수의 저서에는 한지의 기원과 현대 역사, 우수성 등을 비롯해 한지를 만드는 방법까지 상세히 소개된다고 했다.

1909년 현대 한지의 종류가 40여 개에 이르렀으며 관공지, 옷·책·장호지·옷장·장갑·한



지난 2009년 아트게이트갤러리에서 열린 이승철 교수 전시회에서 자리를 함께 한 이승철 교수(오른쪽), 왼쪽은 심바이 김 갤러리 디렉터. 한지의 사진은 이번 전시회에서 선보인 이승철 교수의 작품 중 일부다.

(조용 방탄복) 등 활동 분야도 많았다.

우리의 조상들은 한지로 만든 장한 허시대를 살아내고, 한지 장은 사치를 공부하고, 한지 장은 호의를 돌리며 살아가 한지로 만든 수에 감겨 생을 마감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년 동안 한지를 연구해 왔다. 고서와 수첩은 물론이고 직접 종이공작을 운영하기도 했으며 전 연령대에 친숙한 제도로 손수 기를

이승철 교수는 모교 미대 동양학과를 졸업한 뒤 90년대부터 한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견고한 한지 위해 그러던 고서화를 보면서 ‘한지’를 공부하겠다고 결심했다.

이 교수는 한지, 강습회, 지금은 동양대 교수, 강습회와 한지 관련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김옥영 작가 '서편제' 영역술간

장석주(외대 47 졸) 동문의 부인 김옥영 작가가 이정준 작 '서편제'를 영문으로 번역해

"The Southern" & "Songs"라는 제목으로 London의 Peter Owen출판사에서 최근 출판(사건)했다.

원작 '서편제'는 작가 이정준(1939~2008)이 1976년에 발표한 단편소설이다. 전라남도 정선강 남서부 지역을 배경으로 한국전쟁의 상처가 아물던 시기에 토착화한 전통적 관습의 민속 노래와 이야기다.

김옥영 작가는 University of Michigan과 Southern Connecticut State University에서 이수하였으며 한국문화 및 예술재단이 제정한 Best Novel Translator Award 1980년 수상자다.

한국문화 연구소 후원으로 출판된 이 번역 '서편제' 영문 번역 책자(Paperback Crown size, 167 pp.)는 소설이 실화처럼 표제에

영화작가 제정된 사내 인물사진이 인쇄되었다. 서편제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가 개봉되어 주류 관객으로 소문이 났을지 모르지 않겠다.

이 저서의 내용을 보면 우선 Michael J. Pettit, (New York Binghamton 대학 동양학 연구 교수)의 13 pages에 달하는 서문은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소위 유목 (school)이기도 하다. 하지만 번역된 시편제라는 아무런

연관도 없다.

Abstract: Yi Chang-jun's haunting and disturbing novel is set in the 1950s after the Korean War in the remote south of the country, home of the traditional art of pansori singing, a moving and plaintively beautiful style of folk song performed by traveling musicians.

The linked stories center on a family of itinerant singers: a boy and his stepfather and half-sister. Believing that his stepfather caused his mother's death, the boy cannot live with the murderous hatred he feels towards him, so he disappears, leaving father and daughter to travel and perform alone. Believing her art can become elevated to the highest standard only by sensory deprivation, the father is said to have blinded the child. Thereafter, she becomes a legendary performer throughout the land.

Years later the half-brother arrives in a village and finds his sister in a tavern. He asks her to sing for him, and with his drum accompaniment the two perform pansori songs throughout the night though never explicitly acknowledging their relationship. So begins an unforgettable chain of events in one of the strangest and most haunting of novels exploring themes such as forgiveness, the redemptive power of art, and modern man's loss of innocence and alienation from traditional values—the values at the heart of Seoyeonje.

A magic-realist gem, the novel employs epic myth and fantasy to create a fusion of the real and the fantastic. Yi Chang-jun's story has attained near-mythical



조옥규 작가 '내안의 빨간장미' 출간

조사부(문리대 62) 동문의 부인 조옥규 작가가 신간 '내안의 빨간 장미'를 출간했다. 지난 6월 16일 LA에서 '작가의 집'인

이날 출판기념회는 김병연(공대 68) 동문의 부인으로 '작가의 집' 완결된 김병연 작가(작자 PEN 한국본부 미주지역 연합회 회장)의 축사, 전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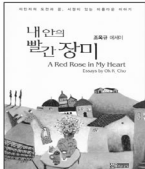
(PEN 한국본부 미주지역 연합회 회장)의 축사, 전라문

her to sing for him, and with his drum accompaniment the two perform pansori songs throughout the night though never explicitly acknowledging their relationship.

So begins an unforgettable chain of events in one of the strangest and most haunting of novels exploring themes such as forgiveness, the redemptive power of art, and modern man's loss of innocence and alienation from traditional values—the values at the heart of Seoyeonje.

A magic-realist gem, the novel employs epic myth and fantasy to create a fusion of the real and the fantastic. Yi Chang-jun's story has attained near-mythical

status in South Korea, especially with the acclaimed and award-winning film of the novel breaking box-office records on its release in the 1990s.



~출판기념회가 끝난 뒤 조사부 동문 가족이 한 자리에 모였다. 왼쪽부터 2녀 세나, 둘째 사희, 장미 세진, 조옥규 작가, 조사부 동문, 손자 세호, 세나, 세호, 셋째 사희, 장미 세진, 첫째 사희는 출간으로 축하했다.

출처: 마르지 않는 샘은 문학으로 지상에서의 만능과 해이 같은 인생의 단편이 녹아 있다"고 말했다.

김문희 작가는 또한 "살을 영화하게 느낀 편지와 아름다움이 절제 잘라 된을 드러내는 것으로 본래의 모습을 더욱 선명하게 해주는 작품"이라고 말했다.

김철우 교수 암 조기검진 세미나

마이오인프라 알연구소, 8월 8일 뉴욕과 뉴저지서 개최

마교 외대 김철우 교수가 창립한 마이오인프라 알연구소가 지난 6월 8~9일 뉴욕 플라자 금강산 식당과 뉴저지 플러시이스트 카운티에서 암 조기검진 세미나를 각각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마교 외대 알연구소의 공동으로 부부 검진과

암 조기 검진법을 소개하기

암 조기 검진법을 소개하기 위해 뉴욕에 있는 마이오인프라 알연구소, 8월 8일 뉴욕과 뉴저지서 개최



뉴잉글랜드 교 박경민 박사

동창회장(葬)으로 장례식 업무

1997년 서울대 동창회 뉴잉글랜드 지회를 창설하고 초대 회장을 역임한 박경민 박사(외대

53~54년생)이 지난 6월 8일 오전 11시경 향년 77세로 유명을 달리했다.

교 박경민 박사는 30년 가까이 Metrowest Hospital에서 개조 수술과 파장을 역임했다. 초창기의 뉴잉글랜드 지역 발전뿐 아니라 미국 총통장 임에도 불구하고

뉴잉글랜드 지역 동창회장으로 6월 16일 치른 장례식은 100



에서의 장례에 큰 공헌을 남겼다. 그 예로 한인회 이사장, 한인회 건립위원,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 사업회 회장, 미국 도연회 연합 회장, 초대 평화 위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노인 대학을 창설했으며, 의사 연구자, 미국 총통장 임에도 불구하고

뉴잉글랜드 지역 동창회장으로 6월 16일 치른 장례식은 100

여명의 조개가 그 박 박사의 한인 사회에 헌신한 뜻을 기르며

조식사에 응한 박 박사는 고 박 박사와 함께 미국 총통장 평화위원회의를 다닌다는 일어난 일들을 열거하며 박 박사의 동창회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다.

김문희 상임이사는 박 박사와 여러 기관에서 일한 것이 하면서도 사회에 대한 주의를 되살리기도 했다.

윤희정 전 회장은 "선배를 잘못 뒤서 일을 많이 한다"는 박 박사의 말에 흥분한 선배와 같이 일하게 된 행운에 대해 말했다.

박경민 박사는 "동창회는 고인의 한인 사회에 대한 관심과 남다른 애정이 있는 우리들이 이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교 박경민 박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러운 서울대학교 동문 사회기에 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교 박경민 박사는 미인정, 장미, 아름다운 꽃, 그리고 영의 존엄과 존귀를

~김경민 전 동창회장



제2차 평의원 회의

활발한 의견개진과 질의

이번 제2차 평의원 회의를 위한 알래스카 크루즈에는 무려 140명의 평의원과 가족들이 참가

해 역대 평의원 회의 중 가장 많은 가족들이 참가한 행사라 했다.

일찍부터 시계 방향으로 강수상 미주 동창회 전 회장, 윤상래 뉴 잉글랜드 동창회 전 회장, 손재욱 필라델피아 전 동창회장, 서준민 미주 동창회 회칙위원장, 구말순 하틀랜드 동창회장, 주기복 필라델피아 동창회장, 조희연 필라델피아 동창회 전 회장. 이 동문들은 평의원회의에서 가장 열성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발의해주었다. 오인환 차기 동창회장은 'Leadership and Group ID'를 주제로 강연해주었다. 오 차기 회장은 이날 강연 내용을 종합해 차후 동창회보에 게재기로 했다. 오 회장의 강연은 많은 동문들이 공감대를 표시해 내년 평의원회의 때 더 많은 평의원들에게 헌연 더 길어해 주었으면, 하는 소원과 함께 슬라이드를 부탁한 동문 교수들도 여럿 있었다. 특히 모교 학생들이 입학 직후와 졸업직전 leadership과 교육 수업을 필수로 해야 한다는 점에 하틀랜드 구말순 회장을 비롯해 많은 동문들이 동의했다.***



특히 본 회의 중 안건의 추진과 의결을 위한 토의 중 각 평의원과 동창회장들은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질의하는 등 모두가 한결같이 미주 동창회의 발전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는 평가다. 아주 사소한 문제도 꼼꼼하고 세심하게 따지고 확인하며 젊고 넘



7사진 뒤편부터 시계방향으로, 평의원 회의를 마친 후 참가 인사들 중 일부가 Norwegian Pearl(호의 7층 계단에 모여 기념촬영 했다. 미주 동창회 방석훈 상임고문(오른쪽)의 주례(?) 같은 목소리의 선창에 따라 참가 동문들이 함께 교가를 제창하고 있다. 성주경 사무총장 사회로 진행된 본 회의에서 참가 동문들이 열정하고 있다.

어가곤 했다. 이날 시카고의 강수상(외대 47) 박사는 저자가 미주 동창회장 선출을 위한 선출위원 선반에 관한 안전 중 "특히 미주 동창회

장은 경제력이 없는 인제도 회장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회칙과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역설해 참가 동문들로부터 탄탄한 공감의 박수를 받았다.***





메리치 평원원 회의를 위한 귀환 여행

“추억에 길이 남을 낭만의 멋진 여정”

제1회 평원원 회의를 마친 동문들은 Alaska 여행을 따라 평원지를 두루 관망하는 시간을 가졌다.

알래스카의 주도(主都)인 Juneau와 빙하지대를 비롯해서 과거 금광으로 유명했던 Skagway를 돌아 보았다. 또한 빙하 국립공원인 Glacier Bay를 관광하고 연어와 원주민인 토틀 킷 족의 Totem Pole로 유명한 Ketchikan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Canada British Columbia의 세계 3대 정원 가운데 하나인, Buchart Garden 등지를 관광했다.

동문과 가족들은 한결같이 “평원회 회의도 아주 원만하게 끝낼 태도가 평생 동안 추억

에 길이 남을 낭만의 멋진 여정이 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문들이 탑승한 Norwegian Pearl호는 바하마 선적으로 지난 2006년 12월 첫 취항했다. 총 9만3천 톤에 승무원 1천154명, 승객은 2천380여 명이 탑승할 수 있다.

이 배는 독일 Papenburg의 Meyer Werft 조선소에서 2년여에 걸쳐 만들어진 것으로 길이 294미터, 폭 38미터로 총 제각비는 5억 1천만 달러가 들어갔다고 한다.

Alaska는 인디언 언어로 ‘가대할 땅’을 의미하며 면적은 본토의 5분의 1에 해당하고 있다. 자원과 생태계의 보고라고도 한다. 자원의 보고라고도 한다. 1867년 러시아가 720만 달러에 미국에 매각했다.***

↑ “Welcome to the Mendenhall Glacier!” 주도 Juneau를 비롯해 해안선을 따라 이어진 거대한 Fjord가 절경을 이루고 있다. 임관수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동문들이 거대한 빙하를 배경으로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 이 빙하는 길이 17마일에 깊이는 200m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 동문들이 Norwegian Pearl호에서 내린 뒤 Skagway 지역의 기차를 타러 이동하고 있다. “Skagway”란 ‘북풍의 집’이라는 뜻으로 1889년 클론다이크에서 금광성이 발견되면서 이른바 Gold Rush를 이룬 지역으로 유명해진 곳이라고 한다. 이곳에서 기차로 White Pass의 산 정상에 오른다.



김은종 회장 동문들 데이브마다 댕아가 씨아

평원회 회의의 일정이 모두 끝나기 전날 밤 만찬에서 김은종 미주 동창회장은 각 테이블마다 찾아다니면서 참가 동문과 가족들에게 감사의 차를 올렸다.

동문들과 가족들은 “이번 크루즈 여행을 아주 만족스럽게 만끽하고 너무 빨리 지나가 아쉽다”고 말했다.***





↑ 동문들이 White Pass의 산 정상에 올라서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한 여름철임에도 두툼한 옷을 입어야 할 정도로 차갑다.



↑ Ketchikan의 삭스만 원주민 마을에 만들어진 Totem Village 가운데 한 곳이다. 왼쪽부터 이준형 뉴욕 글든 클럽 회장의 부인 이재영 여사, 임광수 회장의 따님 임재영 여사, 임광수 회장, 사위 최종찬 전 장관.



↑ Bchart Garden은 세계 3대 Garden중 하나로 Vancouver 섬의 남단 British Columbia의 주도 Victoria에 있다. 동문들 중 일부가 이곳을 방문한 한 자리에 모였다.

← 동문과 동문 부인들이 Bchart Garden을 관람하던 중 이탈리아계 미국인 Shirley Matraccia 부인(가운데)을 만나 환담했다. Shirley부인은 할아버지 Lee성의 한국인 매느리를 맞았는데 "그렇게 사할스러운 수가 없다"고 좋아했다.



제21차 평의원 회의

“감히 임광수 회장을 돌리다”

제21차 평의원 회의 참가자들은 일정을 모두 마친 후인 13일(금) Norwegian Pearl 크루즈 선내 Summer Palace에서 Farewell 만찬 뒤 동문들은 Bliss Ultra Lounge에서 거대한 댄스파티를 즐겼다.

이 댄스파티는 크루즈 선 전속 밴드인 'Igana Trio' 전속 댄스가 특별히 초청돼 무대는 밤 늦은 시간까지 동문들의 무도회장으로 변했다.

Sidney Potier와 Lulu 등이 주연한 영화 'To Sir with Love'에서 여주인공이 연기하는 선생님과 멋진 Farewell 댄스 경연을 기

약할 것이다.

이날 미주 동창회의 백목자 총무국장이 임광수 총동창회장을 무대로 모시어 줄 추는 장면을 그대로 'To Sir with Love'의 댄스 장면을 보는 듯 했다.

특히 백 목자는 댄스중 감히(?) 임광수 총동창회장을 몇 차례나 돌리는 무례(?)를 감행해 동문들의 눈길을 모았다.***

—Summer Palace에서 만찬 중 김은중 회장과 부인 김(원)혜심 여사가 이화여대 복미주 등창회 한명숙 이사장, Dr. David Lin 부부와 환담했다.



↑ 김은중 미주 동창회장과 부인 김(원)혜심 여사가 동문들의 환영 속에 함께 무대에 나서 'Igana Trio'가 연주하는 부로스 음악에 맞춰 부드럽게 스텝을 밟아 나가고 있다.

←백목자 총무국장이 춤을 추며 존경의 눈으로 임광수 회장을 바라보는 눈길은 영화 'To Sir with Love'의 Farewell 댄스 파티의 한 장면을 그대로 연상시켜주고 있다. 임광수 총동창회장의 눈길은 마치 귀여운 손녀의 재롱을 보는 듯 하다.



사진 및 글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전봉일(공동 50 권역) 등인이 능숙하게 스텝을 리드하고 있다. 전 등인은 이 분야 전문가(?)답게 빠른 춤 솜씨를 과시했다. 뉴욕 글든 클럽 이준행 회장은 부인 이재영 여사의 스텝을 밟고 있다. 송순영 전 동창회장이 부군 안경진 박사와 듀엣으로 '한많은 대동강'을 열창하고 있다. 김재영 김사가 '물레방아 도는 내막' 오인환 차기 회장 부인 오미주 여사는 'Too Young'을 멋지게 불러주었다. 남기주 갈수록 빛나는 회장의 반주로 남기주 등은 회 서치원 회장이 '물고넌네 박달재'를 부르고 있다. 김 회장은 'Watch Magic'이라는 독특하게 개명한 악기 반주로 인기를 끌었다.

사랑하는 친구를 보내면서...



강창민(외대 58)

친구 노재욱을 처음 만난 것은 1959년 3월 대학 입학한 때였으니 50년이 넘는 세월 중 40년을 시카고에서 희로애락을 같이 하며 보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내 소(小)를 써 줄 것을 알고 싶어왔는데... 이렇게 빨리 떠나셨다니 당신이 떠난 후로 몇 달이나 어리석게 마음을 어찌할 때부터 아직도 모릅니다.

의대학 졸업 후 군의관 복무 중, 동기 송원길과 적실과 별연이 닿기 한평생을 방방 갔다가 다른 동기 한평생을 만났는데, Dr. 노가 기가 크고 늘어난 의사의에게 반해 적실과 별연이 매를쳐가며 따라 다녔다는 소문이 났고, 시카고에 와서 보니 현재 Mrs. 노는 시카고에 계시었습니다.

당시 시카고에 있는 미혼인 저와 몇 친구들은 리노인도 디마히아 결혼장황을 하고 있던 Dr. 노에게 소(小)를 쓰라, 적실도 시카고에, 이민 초기 어리석은 시절에 이민 생활은 많은 조언도 해주며, 시카고에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친구 노재욱이 떠났는데, 저로서는, 서로서로 지켜주며 지내지 않게 잘 지내 살 수 있도록, 올리비아 피어 주기도 하고, 다 함께 일을 해가며 나의 치기 가족들이 시카고를 방문할 때, 다시 함께 오게 하고 다녔는데, 남시카도 호수에서 배까지도 뺐습니다.

나의 죽음으로 끝났는데 대화가 "코트" 라는 스포츠를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기도 하고, 한없이 의욕을 수도 있었던 이민 생활이 있었으니, 이 친구가 되어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던 지난 40년을 회상하며, 줄기를 후회없이 주마마조처럼 지나갑니다.

나의 친구 노재욱은 Memorial Weekend 토요일 이른 아침에 세

상을 떠났는데, Memorial Weekend는 수년 동안 친구들과 즐거운 나시 여행으로 주말을 함께 보냈던 특별한 주말이었습니니다.

자율만 동기의 주시모 김중주 선생님, 김용과 선생님, 그리고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동환 선생, 김선철 동기도 같은 친구들이며, 매년 Memorial Weekend 토요일 이른 새벽에 시카고를 떠나 Wisconsin Wolf River에 2박 3일 어정으로 조기 남시를 다녀왔습니다.

한 해는 우리들이 작은 생선을 낚는 Dr. 노가 재밌었다, 남시에서 낚아기 피는는 바람에 물고기를 낚았던 자꾸 큰이 떨어지다가 잡았던 물고기를 모두 놓았는데, 또 다른 친구가 이에 야단을 쳤는데, 마음씨가 고운 Dr. 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러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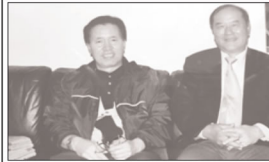
물고기는 이제 생선을 다듬어 재계를 끌어 먹고, 다시 자율만 동기 때에 들리니, 남시와 잔치를 한 번 더하고, 집으로 오려왔습니다. 이제의 야단 칠었던 친구들도, 생선을 떠내려 노재욱도 먹고 병을 낫고, 우리만 이제까지 남아 그 친구들을 그리워 합니다.

나의 친구 노재욱을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수줍은 성격이 강한 친구입니다.

한 마디로 다재 다능하며 Resourceful하고, 열의적인, 친근하고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말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우리들의 스승이었고 우리와 40-50년을 시카고에서 함께 지내다 강수를 선 선생님이셨는데, Dr. 노는 "인간적으로"라고 종종 말씀했습니다.

PC가 처음 소개했을 때는, 제일 먼저 Computer를 배워 Graphic design으로 Homemade card, Program book, Internet website design 중 우리들이 High tech을 소개하기도 하였고, 서울에서 출판사 Summer Camp 할 때는 혼자서 여러 연말을 다 맡아 보강하기도 하였고, 자기 집 지하에 있는 방을 만들어 친구들을 초대하던 하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노재욱 지하극장에서 아카데미 상 수상 후보작을 개봉극장 상영과 동시에 다 볼 수 있었는데, 노재욱이 우리에게



환창집 선배를 추모하며...

윤상래(수의대 62)
뉴욕클립스 동창회 회장

동창회보 지난 6월호에서 한창집(문리대 57·시진 오펜록) 선배에 대한 글을 읽을 때 선배는 복장 동맥류(aneurysms) 수술을 받고 있었다.

회리가 아파서 췌장인 MRI 결과 수술을 받게 됐는데 수술 후 전하로 수술이 성공적이었으며 퇴원 후에도 기분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였다. 며칠

후에는 보스턴의 위로 화환을 보내야 하는 e메일을 보내줄 정도로 매우 양호하였다.

그러다 지난 7월 12일 갑자기 풍중을 느끼고 병원에 갔다. 한창집은 그날 밤에 갑자기 사망을 해서 선배를 추모하며... 선배께서는 6.25 전쟁때 당시 미군본부에서 근무했고 이 때 대한민국의 최 연소자 통병관으로 근무를 하였다.

모든 서울대를 졸업한 후 Fulbright Scholarship으로

미국유학, Iowa 주립대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신원기과 부속임으로 미국회와 백악관을 출입 하였습니다.

그 뒤 지난 20여년간 KPAWNEWS 통신망을 조직,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 불타는 듯한 열을 쏟았다 (한창집: kpaowners.net).

법망을 쓰지었던 순간까지도 e메일을 교환하며 한창집의 절절마치도 배우고 가진 문물 선배에서 남기고 가진 일찍이 보는 것조차 어릴적들 그 뒤를 따라 수가 있습니다.

필자와 시카고의 강영국-김정수 등 당시 선배께서 소신 글을 형식적 했던 몇 통문들은 그동안 선배께서 써오신 글을 모아 출판한 계획은 하고 있다. 한창집은 우리들의 선배와 회를 하는 이들에게 주시모 김중주 사기 바랍니다...

윤상래(수의대 62)
yoonssang1@eol.com
강영국(수의대 67)
youngk.kang@yahoo.com
김정수(문리대 69)
sanrzipok@gmail.com

싸서, 육해공군 다 경험하며 Alaska를 여행가로 돌진해 오마와 하는 e메일을 보내줄 정도로 매우 양호하였다.

그러다 지난 7월 12일 갑자기 풍중을 느끼고 병원에 갔다. 한창집은 그날 밤에 갑자기 사망을 해서 선배를 추모하며... 선배께서는 6.25 전쟁때 당시 미군본부에서 근무했고 이 때 대한민국의 최 연소자 통병관으로 근무를 하였다.

모든 서울대를 졸업한 후 Fulbright Scholarship으로 미국유학, Iowa 주립대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신원기과 부속임으로 미국회와 백악관을 출입 하였습니다.

그 뒤 지난 20여년간 KPAWNEWS 통신망을 조직,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 불타는 듯한 열을 쏟았다 (한창집: kpaowners.net).

법망을 쓰지었던 순간까지도 e메일을 교환하며 한창집의 절절마치도 배우고 가진 문물 선배에서 남기고 가진 일찍이 보는 것조차 어릴적들 그 뒤를 따라 수가 있습니다.

필자와 시카고의 강영국-김정수 등 당시 선배께서 소신 글을 형식적 했던 몇 통문들은 그동안 선배께서 써오신 글을 모아 출판한 계획은 하고 있다. 한창집은 우리들의 선배와 회를 하는 이들에게 주시모 김중주 사기 바랍니다...

윤상래(수의대 62)
yoonssang1@eol.com
강영국(수의대 67)
youngk.kang@yahoo.com
김정수(문리대 69)
sanrzipok@gmail.com

사자들을 동원하여 무공훈장을 받고, 문화훈장을 Sprinkler가 부통하지 않을 때, 그 드디어는 연의 본의 집에서 글을 적던 것이다! 나무에 줄을 두어 지웠습니다.

지난 가을에 수선화와 튜울립을 심고, 울 봄에 꽃이 피었을때 사진을 찍어 webside에 올렸는데 하 Court yard에 정원을 만들었다. 마를 배꾸어 Container garden으로 꾸며, 꽃밭으로 장식하며 행사하는 프로젝트 Project, 그리고 Slide의 전통과, 문화관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주셨습니니다.

근년 들어 불가사리 한 단씩 얻어, 식도암으로 삼배포가 뼈에 생애에 지장이 없게도 조식하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문화회와 사관식 들어가는 입구에 Korean Woodsood 30그마를 마지막 선물로 심어 주었습니다.

제 아들이 Dr. 노 다들 부러지던 평생 바라는 꿈을 지게 하는 것이었고, 다시는 문화회관이나 하사고 인을 못지 말라고 하는 데도, 몸을 아끼지 않고 마지 막까지 사생활을 마음껏 즐기며 그 가문에서, 우리에게는 아들이 사할 사할을 지게 하는 보람이 주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와 함께 보낸 지난 45년의 세월은 모두 두근이 아기를 하기도 모자랄 추억입니다.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날 해로 떠났는데, 이마를 다시 이마를 두들겼는데...

선배님! 잘 정돈되어 아름다운 꽃들이 피면 본인이 Develop 한 BBQ recipe 라며 친지들을 불러 파티를 하기를 하였습니다.

Grand Chef Outfitters 자니를 사 주셨다고 하며 Chef 재료를 잘 하라던 Dr. Seewee는 BBQ recipe를 친구들에게 나누어 줄 정도의 실력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문화회관에 재정원 이사로 계시면서 기부금도 내시는 것이 아니라, Garden club을 만들어 문화회관 근처에 화환을 심기 위하여 여러 자원

What Spring Bliss Is
By Jae Ro

When I hear gentle rubbing
sounds of apple tree twigs
Shaken by the spring breeze
Sprouting tiny green buds on them
I know what spring bliss is
That nature can offer for me.

When I see tiny brush buds
on Magnolia tree branches
Soaked by an April shower
Flushing with pink tint
I know what spring bliss is

That nature can provide for me.

When I see smiling pink flower blossoms
Fluttering in the spring drizzle
Exelling gentle fragrance
I know what spring bliss is
That nature can render for me.

When I smell April fragrance
Blown with warm shimmering air waves
Stirring people's mind
I know what spring bliss is

That nature can graciously grant to me.

The nature can embrace me
with smugness, softness, and comfort
Making me fall in infinity
of mother nature's gracious generosity.
I feel I am truly blessed
Because I can perceive all the spring bliss
Whatever form they present.

이 시는 지난 2010년 4월 노재욱 동문들이 사친들을 재회하면서 같이 친한하 작품이다.

동창회비·관악후원금·광고및 업소록비·기타 후원금(※2011년 7월1일~2012년 7월 23일까지)

2011.7~2012.6월 후원부표

▶Alaska	송준승(광대 68)	민병대(문리 38)	전성상(사대 52)	유승태()	한종훈(지대 62)	조희연(문리 57)	박창홍(의대 52)	조승현(의대 65)
▶Arizona	송준승(광대 68)	민병대(문리 38)	전성상(사대 52)	유승태()	한종훈(지대 62)	조희연(문리 57)	박창홍(의대 52)	조승현(의대 65)
▶California	송준승(광대 68)	민병대(문리 38)	전성상(사대 52)	유승태()	한종훈(지대 62)	조희연(문리 57)	박창홍(의대 52)	조승현(의대 65)
▶Chicago	송준승(광대 68)	민병대(문리 38)	전성상(사대 52)	유승태()	한종훈(지대 62)	조희연(문리 57)	박창홍(의대 52)	조승현(의대 65)
▶Colorado	송준승(광대 68)	민병대(문리 38)	전성상(사대 52)	유승태()	한종훈(지대 62)	조희연(문리 57)	박창홍(의대 52)	조승현(의대 65)
▶Connecticut	송준승(광대 68)	민병대(문리 38)	전성상(사대 52)	유승태()	한종훈(지대 62)	조희연(문리 57)	박창홍(의대 52)	조승현(의대 65)
▶Delaware	송준승(광대 68)	민병대(문리 38)	전성상(사대 52)	유승태()	한종훈(지대 62)	조희연(문리 57)	박창홍(의대 52)	조승현(의대 65)
▶Florida	송준승(광대 68)	민병대(문리 38)	전성상(사대 52)	유승태()	한종훈(지대 62)	조희연(문리 57)	박창홍(의대 52)	조승현(의대 65)
▶Georgia	송준승(광대 68)	민병대(문리 38)	전성상(사대 52)	유승태()	한종훈(지대 62)	조희연(문리 57)	박창홍(의대 52)	조승현(의대 65)
▶Hawaii	송준승(광대 68)	민병대(문리 38)	전성상(사대 52)	유승태()	한종훈(지대 62)	조희연(문리 57)	박창홍(의대 52)	조승현(의대 65)
▶Illinois	송준승(광대 68)	민병대(문리 38)	전성상(사대 52)	유승태()	한종훈(지대 62)	조희연(문리 57)	박창홍(의대 52)	조승현(의대 65)
▶Indiana	송준승(광대 68)	민병대(문리 38)	전성상(사대 52)	유승태()	한종훈(지대 62)	조희연(문리 57)	박창홍(의대 52)	조승현(의대 65)
▶Iowa	송준승(광대 68)	민병대(문리 38)	전성상(사대 52)	유승태()	한종훈(지대 62)	조희연(문리 57)	박창홍(의대 52)	조승현(의대 65)
▶Kansas	송준승(광대 68)	민병대(문리 38)	전성상(사대 52)	유승태()	한종훈(지대 62)	조희연(문리 57)	박창홍(의대 52)	조승현(의대 65)
▶Kentucky	송준승(광대 68)	민병대(문리 38)	전성상(사대 52)	유승태()	한종훈(지대 62)	조희연(문리 57)	박창홍(의대 52)	조승현(의대 65)
▶Louisiana	송준승(광대 68)	민병대(문리 38)	전성상(사대 52)	유승태()	한종훈(지대 62)	조희연(문리 57)	박창홍(의대 52)	조승현(의대 65)
▶Maine	송준승(광대 68)	민병대(문리 38)	전성상(사대 52)	유승태()	한종훈(지대 62)	조희연(문리 57)	박창홍(의대 52)	조승현(의대 65)
▶Maryland	송준승(광대 68)	민병대(문리 38)	전성상(사대 52)	유승태()	한종훈(지대 62)	조희연(문리 57)	박창홍(의대 52)	조승현(의대 65)
▶Massachusetts	송준승(광대 68)	민병대(문리 38)	전성상(사대 52)	유승태()	한종훈(지대 62)	조희연(문리 57)	박창홍(의대 52)	조승현(의대 65)
▶Michigan	송준승(광대 68)	민병대(문리 38)	전성상(사대 52)	유승태()	한종훈(지대 62)	조희연(문리 57)	박창홍(의대 52)	조승현(의대 65)
▶Minnesota	송준승(광대 68)	민병대(문리 38)	전성상(사대 52)	유승태()	한종훈(지대 62)	조희연(문리 57)	박창홍(의대 52)	조승현(의대 65)
▶Mississippi	송준승(광대 68)	민병대(문리 38)	전성상(사대 52)	유승태()	한종훈(지대 62)	조희연(문리 57)	박창홍(의대 52)	조승현(의대 65)
▶Missouri	송준승(광대 68)	민병대(문리 38)	전성상(사대 52)	유승태()	한종훈(지대 62)	조희연(문리 57)	박창홍(의대 52)	조승현(의대 65)
▶Montana	송준승(광대 68)	민병대(문리 38)	전성상(사대 52)	유승태()	한종훈(지대 62)	조희연(문리 57)	박창홍(의대 52)	조승현(의대 65)
▶Nebraska	송준승(광대 68)	민병대(문리 38)	전성상(사대 52)	유승태()	한종훈(지대 62)	조희연(문리 57)	박창홍(의대 52)	조승현(의대 65)
▶Nevada	송준승(광대 68)	민병대(문리 38)	전성상(사대 52)	유승태()	한종훈(지대 62)	조희연(문리 57)	박창홍(의대 52)	조승현(의대 65)
▶New Hampshire	송준승(광대 68)	민병대(문리 38)	전성상(사대 52)	유승태()	한종훈(지대 62)	조희연(문리 57)	박창홍(의대 52)	조승현(의대 65)
▶New Jersey	송준승(광대 68)	민병대(문리 38)	전성상(사대 52)	유승태()	한종훈(지대 62)	조희연(문리 57)	박창홍(의대 52)	조승현(의대 65)
▶New Mexico	송준승(광대 68)	민병대(문리 38)	전성상(사대 52)	유승태()	한종훈(지대 62)	조희연(문리 57)	박창홍(의대 52)	조승현(의대 65)
▶New York	송준승(광대 68)	민병대(문리 38)	전성상(사대 52)	유승태()	한종훈(지대 62)	조희연(문리 57)	박창홍(의대 52)	조승현(의대 65)
▶North Carolina	송준승(광대 68)	민병대(문리 38)	전성상(사대 52)	유승태()	한종훈(지대 62)	조희연(문리 57)	박창홍(의대 52)	조승현(의대 65)
▶North Dakota	송준승(광대 68)	민병대(문리 38)	전성상(사대 52)	유승태()	한종훈(지대 62)	조희연(문리 57)	박창홍(의대 52)	조승현(의대 65)
▶Ohio	송준승(광대 68)	민병대(문리 38)	전성상(사대 52)	유승태()	한종훈(지대 62)	조희연(문리 57)	박창홍(의대 52)	조승현(의대 65)
▶Oklahoma	송준승(광대 68)	민병대(문리 38)	전성상(사대 52)	유승태()	한종훈(지대 62)	조희연(문리 57)	박창홍(의대 52)	조승현(의대 65)
▶Oregon	송준승(광대 68)	민병대(문리 38)	전성상(사대 52)	유승태()	한종훈(지대 62)	조희연(문리 57)	박창홍(의대 52)	조승현(의대 65)
▶Pennsylvania	송준승(광대 68)	민병대(문리 38)	전성상(사대 52)	유승태()	한종훈(지대 62)	조희연(문리 57)	박창홍(의대 52)	조승현(의대 65)
▶Rhode Island	송준승(광대 68)	민병대(문리 38)	전성상(사대 52)	유승태()	한종훈(지대 62)	조희연(문리 57)	박창홍(의대 52)	조승현(의대 65)
▶South Carolina	송준승(광대 68)	민병대(문리 38)	전성상(사대 52)	유승태()	한종훈(지대 62)	조희연(문리 57)	박창홍(의대 52)	조승현(의대 65)
▶South Dakota	송준승(광대 68)	민병대(문리 38)	전성상(사대 52)	유승태()	한종훈(지대 62)	조희연(문리 57)	박창홍(의대 52)	조승현(의대 65)
▶Tennessee	송준승(광대 68)	민병대(문리 38)	전성상(사대 52)	유승태()	한종훈(지대 62)	조희연(문리 57)	박창홍(의대 52)	조승현(의대 65)
▶Texas	송준승(광대 68)	민병대(문리 38)	전성상(사대 52)	유승태()	한종훈(지대 62)	조희연(문리 57)	박창홍(의대 52)	조승현(의대 65)
▶Utah	송준승(광대 68)	민병대(문리 38)	전성상(사대 52)	유승태()	한종훈(지대 62)	조희연(문리 57)	박창홍(의대 52)	조승현(의대 65)
▶Vermont	송준승(광대 68)	민병대(문리 38)	전성상(사대 52)	유승태()	한종훈(지대 62)	조희연(문리 57)	박창홍(의대 52)	조승현(의대 65)
▶Virginia	송준승(광대 68)	민병대(문리 38)	전성상(사대 52)	유승태()	한종훈(지대 62)	조희연(문리 57)	박창홍(의대 52)	조승현(의대 65)
▶Washington	송준승(광대 68)	민병대(문리 38)	전성상(사대 52)	유승태()	한종훈(지대 62)	조희연(문리 57)	박창홍(의대 52)	조승현(의대 65)
▶West Virginia	송준승(광대 68)	민병대(문리 38)	전성상(사대 52)	유승태()	한종훈(지대 62)	조희연(문리 57)	박창홍(의대 52)	조승현(의대 65)
▶Wisconsin	송준승(광대 68)	민병대(문리 38)	전성상(사대 52)	유승태()	한종훈(지대 62)	조희연(문리 57)	박창홍(의대 52)	조승현(의대 65)
▶Wyoming	송준승(광대 68)	민병대(문리 38)	전성상(사대 52)	유승태()	한종훈(지대 62)	조희연(문리 57)	박창홍(의대 52)	조승현(의대 65)

※문서에서 보내주시는 각종 후원금은 Tax감정 대상이 됩니다.

Federal ID No. 13-3859506

※동창회비를 비롯한 후원금은 동창회 문과 동창회보 발간에 근거리 됩니다.

※광고 디자인은 매월 초에 보내주시십시오.

snuusausa@yahoo.com

총무국장 박옥자 (818-225-8411)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후원금 (회계연도 2012년 7월 ~ 2013년 6월)

성명: 한글	영문	단체회원명: 대학원	입학연도:
주소: 한글	영문	주소: 한글	주소: 한글
전화: (R)	(H)	(C)	(Fax)
관악후원금	동창회비(구독료)	업소록 광고비	입학광고비
연\$200			
연\$500	2012~2013년 \$75	2012~2013년 \$120	
연\$1,000		다자언 명함 1/2 \$200	
기타\$		다자언명함크기\$500	
보내실 곳: 1225W, 190th St, #465, Gardena, CA 90248		Fax: 310-515-7883	E-Mail: snuusausa@yahoo.com
지불방법 (체크 또는 Card)	Pay to order of 'SNUAUSA'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기타()	전화()<310-515-7888>로()	체크 No.()	
Card No.	Security Code:	Expire Date:	
Cardholder's Name:	Date:		
Address No. Only	Zip	Pay to order of SNUAUSA	

※본 회계연도 2012년 7월 ~ 2013년 6월

※본 회계연도 2012년 7월 ~ 2013년 6월

※본 회계연도 2012년 7월 ~ 2013년 6월

※본 회계연도 2012년 7월 ~ 2013년 6월

※본 회계연도 2012년 7월 ~ 2013년 6월

※본 회계연도 2012년 7월 ~ 2013년 6월

※본 회계연도 2012년 7월 ~ 2013년 6월

※본 회계연도 2012년 7월 ~ 2013년 6월

※본 회계연도 2012년 7월 ~ 2013년 6월

※본 회계연도 2012년 7월 ~ 2013년 6월

※본 회계연도 2012년 7월 ~ 2013년 6월

※본 회계연도 2012년 7월 ~ 2013년 6월

※본 회계연도 2012년 7월 ~ 2013년 6월

※본 회계연도 2012년 7월 ~ 2013년 6월

※본 회계연도 2012년 7월 ~ 2013년 6월

※본 회계연도 2012년 7월 ~ 2013년 6월

23

2010.7~
2011.6
특창회비

California	주거자금 회자 1500
바우선주 (미)457/125	○Oregon
배식민 (미)477/100	이식적 회자 300
○Georgia	○San Diego
구명수 (미)611/000	550
주거자금 회자 600	○Washington* 출식적 회자 600
김영호 (미)256/100	○Washington, DC
김효현 (미)452/100	상업회자 (미)471/550
○Maryland	
권철주 (미)498/200	
○New Jersey	
박민호 (미)347/650	
주거자금 회자 300	
정영철 (미)256/100	
정영철 (미)452/100	
○Maryland	
김승희 (미)455/125	
○Virginia	
최은호 (미)490/100	
지부별분급	
○남가주	
김영호 회자 3000	
○중가주	
이우철 (미)457/100	
○중부 Texas	
이재식 (미)457/100	
○Arizona	
김영호 회자 500	
지영현 (미)452/100	
○Chicago	
김영호 회자 1200	
김영호 회자 1200	
○Georgia	
박민호 회자 600	
○Illinois	
김영호 회자 500	
○Heartland	

노명호(CA)·엄동해(CA)·감수상(CH)·송순영(CH)·이준행(NY)·정양수(GE)·정병욱(MA)
동문

▶ **Minesota**
정은옥(간호75)400
+200(미주)
▶ **NewEngland**
김병국 회장 1000
▶ **Philadelphia**



미주 동문 협소록

광고 문의는 전화
(818) 225-8411로

AZ 아리조나

Tempe Korean Methodist Church
김관훈(총대 79) 480-229-8826
1265 S. Solomon Dr. Mesa AZ 85204



CA 남가주

건축/건설업

HNK Teck, INC(하나건축 사무소)
한효동(총대 58) (213)422-9299
7518 1/2, Foothill Bl LA. CA. 91042

ACCU Construction, Inc.
영동배(총대 74)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 Santa Ana CA 92705

건축사 건축사무소

이승학(총대 61) (310) 364-0705
1424 4th St., #700 Santa Monica CA 90401

The Unipac Communities(M)
홍정일(총대 59) (818) 990-5090
3126-B, Scotts Valley Orange CA 92669

JND Engineering
박진희(총대 67) (714) 213-8157
1400 Firestone Blvd, #122 La Mirada CA 90638

Mackone Development Inc.
양대준(총대 56) (213) 252-9506
2244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Sierra Padre Mill Co.(건축자재 생산)
임현빈(문대 61) 760-753-6905
555 N. Vulcan Ave. Encinitas CA

공인회계사

강동순 회계사

강동순(문대 59) (310) 538-9315
9401 S. Vermont Ave. #C-201
Torrance, CA 90502

김재영 공인회계사
* 김재영(문대 62) (213) 385-1985
2960 Wilshire Blvd. #300,

Kim & Kang CPAs
(당첨주 광복회 공인회계사)
김광우(문대 69) (213) 616-1380
3455 Wilshire Blvd. #1150 Los Angeles, CA 90010

Kim & Hwang CPA
김현철(문대 73) (310) 383-6663
3435 Wilshire Blvd. #940 LA, CA 90010

김광현 회계사무소
김광현(문대 69) (213) 736-6789
3200 Wilshire Blvd. #1705 LA, CA 90010

최승규 공인회계사
최승규(문대 62) (213) 381-0761
3650 Wilshire Blvd. #1010 LA, CA 90010

신대식 공인회계사
* 신대식(문대 80) (310) 329-6557
555 W. Redondo Beach Bl. #250,
Carlsbad CA 92008

강호석 회계사무소
강호석(문대 81) (714) 530-3630
12512 Brookhurst St. #370
Garden Grove CA 92640 (213) 380-5060
3600 Wilshire Blvd. #1004 LA, CA 90010

Kim & Yoon CPA
김규정(문대 77) (213) 427-9595
3650 Wilshire Blvd. #500 LA, CA 90010
왕원길 공인회계사

* 왕원길(문대 55) (213) 388-6622
695 S. Vermont Ave. #1350 LA, CA 90005

왕재호 공인회계사
* 왕재호(문대 76) (310) 325-0400
2740 Sepulveda Blvd. Torrance CA 90505
Kim & Yoon A. Prop. Corp.

왕종현(문대 81) (213) 427-9555
3600 Wilshire Blvd. #900 LA, CA 90010

이광철 공인회계사
이광철(문대 92) 949-756-3500
2 Corporate Park, #202, Irvine, CA 92606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문대 76) (213) 387-132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장준 공인회계사
장준(문대 85) Tel:(818) 772-2811
9020 Reseda Blvd. #104
Northridge CA 91324

* Phillip K. Jung, CPA
정광진(문대 76) (213) 252-5900
3345 Wilshire Blvd. #1006 LA, CA 90010

CHA, STANLEY, CPA
차기민(문대 65) (213) 739-5700
3440 Wilshire Blvd. #607
Los Angeles CA 90010

Phillip H. Cho, C.P.A.
조홍문(문대 65) (213) 380-3333
3700 Wilshire Blvd. #950 LA, CA 90010

Daniel D. Moon CPA
문덕수(문대 73) (213) 385-3155
3435 Wilshire Blvd. #965 LA, CA 90010

Phillip K. Jung, CPA
정광진(문대 76) 213-252-5900
3345 Wilshire Blvd. #1006 LA, CA 90010

John J. Kim, CPA
김종관(문대 57) 213-385-2323
3200 Wilshire Bl. South Tower #1310 LA, CA 90010

Kwang Hee Nam CPA
남광희(문대 213-487-1666
3700 Wilshire Blvd #939 LA, CA 90010

Jung Mo Park & Co
박정모(문대 66) 213-383-1390
3255 Wilshire Bl. #1700 LA, CA 90010

김광수 공인회계사
김광수(문대 58) 562-644-3065
12125 Julius Ave. Downey CA, 90242

Koowon Kwon CPA & Assoc.
권옥원(문대 69) 213-480-0520
669 S. Irolo St. LA, CA 90005

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문대 73) 213-380-3801
36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조승범 (David S. Cho CPA)
조승범(문대 74) 213-380-3333
3700 Wilshire Blvd. #950
Los Angeles, CA 90010

금융/재정업

First Standard Bank
임봉기(문대 63), 최영구(문대 61)
James Hong(문대 73)
(213) 892-9999 10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7

Bank of America Home Loans
David H. Lee, CPA Mortgage
Loan Officer 이영희(문대 82)
1 Park Plaza Suite 250 Irvine CA 92614

리태일러

한남재인 (리태일러/상패)
하기환(문대 66) (213) 381-3610
274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he Westar Group 부동산(문대 83)
823-232-1700 1613 Chelsea Road #119 San
Marino CA 91108

S R Window, LLC. 유현 (대학원 74)
323-232-1700 901E. 31st St. LA, CA 90011

Fashion World 부동산(문대 53)
714)491-0706 104 S. Anaheim Blvd., #A-
08 Anaheim CA 92805

HK Pegasus Inc. 이영환(문대 71)
(310)676-1615 13007 Prairie Ave. Hawthorn
CA 90014

Sammy Mart
라울성(문대 64) (213) 623-7617
934 S. Los Angeles St. #J, LA, CA 90015

리태일러/보여양

세계보서
김광철(문대 59) (213) 627-0547
650 S. Hill St. #C8
Los Angeles, CA 90014

무역/수출업

Green Zone International, Inc. 농산물
김현철(문대 65) (714) 724-2580
2800 Ketter Dr. #111 Irvine, CA 92718
greenzone@yahoo.com

무역/디자인
Goldentek Display America, Inc.
방영진(문대 73) (714) 871-5300
1221 North Park Pl. Anaheim CA 92801

S.Y Shipping Corporation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김종표(문대 58) 562-467-5655
670 Oak Tree St. Fullerton CA 90701

Martial Arts Supply
Kens Trading Co., Inc.
이근철(문대 56) (323) 871-8004
737 N. Western Ave. LA, CA 90029

AMSCO Corp. 건축 자재
신용수(문대 70) (562) 407-2121
12611 Hindenbrook Way #K Cerritos, CA 90073
Sierra Padre Mill Co. (건축자재)
임현빈(문대 61) 706-753-6905
555 N. Vulcan Ave. Encinitas, CA 92024

변호사/법률사무소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문대 81)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Anna K. Oh
* 신경민(문대 68) (916) 922-6967
P.O. Box 395 Carmichael CA 95609

Pacific Group USA(태평양상사)
하성원(문대 90) 310-609-3300
18805 S. Laurel Park Rd. Rancho
Domiguez, CA 90220

죽유진 이민 특허 전문변호사
죽유진(문대 64) (213) 385-2229
614 S. Van Ness Ave. Los Angeles, CA 90005

이광희 이민법 변호사
이광희(문대 83) (213) 365-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A, CA 90010

한태호 변호사법률그룹
한태호(문대 75) (213) 639-2900
3699 Wilshire Blvd. #660 LA, CA 90010

가솔/오토/수출업

LinkTV Media.
김현철(문대 65) 818-768-5494
P.O. Box 1369 San Valley, CA 91362

Best Western Friday Harbor Suite
장동철(문대 66) (360) 378-3601
680 Spring St. Friday Harbor WA 98250

부동산/주거업

Keller Williams Realty
유광진(문대 58) (661) 538-2800
1401 W. Rancho Vista Blvd Palmdale CA 93551

James Lee 부동산
이종도(문대 69) (714) 635-4011
1263 S. Euclid St. Anaheim CA 92802

JJ Real Enterprises
박종수(문대 58) (310) 209-0216
10956 Strathmore Dr Los Angeles CA 90024

Ace Realty
성민경(문대 65) (562) 904-1411
1263 S. Euclid St. Anaheim CA 90010

Citi Property Management Co.
최기환(문대 65) (213) 381-3610
3240 Wilshire Blvd. #570 Los Angeles CA 90010

서비스/영객업

Town Gate Cleaner, Inc.
원재현(문대 82) (951) 656-9780
13225 Frederick St. #12
Moreno Valley, CA 92553

K-One Termite, Inc.
* 성명진(문대 65) (213) 280-7999
1157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Jade Textile, Inc.
임태현(문대 69) (213) 744-0808
3315 S. Broadway 2nd Fl. Los Angeles CA 90007

김기열(치대 55) 323-930-1744
026 W. Olympic Bl. LA. CA. 90019

Your Choi's Dental
최종호(지대 70) (323) 585-3332
3131 E. Florence Ave Huntington Park CA 90255

신우철 치과
신우철(지대 67) (310) 530-5455
23632 Crenshaw Bl Torrance CA 90505
권근영 교정치과
권근영(지대 65) (818) 248-0124
3700 Wilshire Blvd. suite 400 LA CA 90010

심학호 치과
심학호(지대 65) (310) 518-3522
414 W. Pacific Coast Hwy Wilmington CA 90744

임희영 치과
임희영(지대 69) (562) 866-6914
9951 Artesia Pl. Bellflower CA 90706

Jo's Family Dentistry
조상하(지대 64) (562) 927-1112
8209 Eastern Ave Bell Gardens CA 90201

정종훈 치과
정종훈(지대 75) (323) 268-8308
2111 I Cesar Chavez Ave. #1 Los Angeles CA

원희성 치과
원희성(지대 65) (661) 327-8619
2115 D. St. Bakersfield CA 93301

송은성 치과
송은성(지대 70) (818) 957-7878
2777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박재호 치과
박재호(지대 54) (213) 487-5961
3123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신우식 치과
신우식(지대 59) (714) 540-5151
2112 S. Bristol St. Santa Ana CA 92704

강인권 치과
강인권(지대 72) (213) 739-8641
3663 W. 8th St. #300 Los Angeles CA 90020

늦은치 치과
이병호(지대 74) (323) 734-3701
966 S. Western Ave. #207 LA CA 90006

이광훈 치과
이광훈(지대 67) (626) 912-6557
1561 S. Nogales St. #C Rowland Heights CA

박태호 치과
박태호(지대 66) (323) 265-1505
5017 Whittier Blvd. Los Angeles CA 90022

조광재 치과
조광재(지대 82) (562) 696-3334
8330 Painter Ave. #B Whittier CA 90602

의료/내과/전문역

권영재 소아과
* 권영재(의대 57) (562) 435-4777
1040 Elm Ave. #200 Long Beach CA 90813

김일영 심장내과
* 김일영(의대 65)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 #100 Los Angeles CA 90004

정수만 알내과·혈액내과
정수만(의대 66) (714) 3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643

김승현(의대 75) (213) 365-5500
3663 W. 8th St. #208 Los Angeles CA 90020

이미정 소아과
이미정(의대 57) (213) 252-0036
520 S. Virgil Ave. #100 Los Angeles CA 90020

자민영(의대 76) (213) 480-7770
520S. Virgil Ave. #103 LA. CA. 90006

South Bay Cancer Center
나경자(간호 70)
310-678-6970 310-543-5327
1408 Hawthorne Bl. LA. CA 90800

최동욱 산부인과
최동욱(의대 59) (909) 620-1976
1818 N. Orange Grove #203 Pomona CA 91767

Sang H. Park, M.D.
박상호(의대 65) (323) 730-0200
945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06

이원택 신경정신과
이원택(의대 65) (562) 591-7377
1745 Pacific Ave. Long Beach CA 90813

전희태 신경외과
전희태(의대 58) (818) 347-3287
2301 Sherman Place West Hills CA 91307

Inland Ear, Head & Neck Clinic
정대관(의대 66) (961) 352-7920
3975 Jackson St. #202 Riverside CA 92503

New Wilshire Medical Clinic
최영수(의대 47) (213) 739-2226
313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Anapa Pain Clinic
조홍기(의대 80) (213) 396-8275
3545 Wilshire Blvd. suite #109 Los Angeles CA 90010

Yoongho Lim, M.D.
윤희호(의대 57) (909) 425-8624
2916 Roadrunner Ct. Highland CA 92348

S.J. Whang, MD, Medical Group
홍석우(의대 53) 1325 Via Del Reg. South Pasadena CA 91030

Kaiser Permanente
니두삼(의대 66) (909) 427-5408
9985 Sierra Ave. Fontana CA 92335

A-HNN, WILLIAM, M.D
안병환(의대 63) (909) 882-1231
399 E. Highland Ave. #314 San Bernardino CA 92404

Kaiser Permanente Medical Group
김홍서(의대 63) (818) 375-2869
13652 Cantara St. Panorama City CA 91402

제조업/제조업

New Pride Corp. (다이어)
김은호(의대 59) (310) 631-7000
2757 E. Del Amo Blvd., Rancho Dominguez CA 90221

Dale Tiffany, Inc. (전기전자)
정예현(의대 63) (714) 739-2700
1483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제조업/냉장고-상업용
서지현(의대 64) (310) 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RF Connection, Inc. (통신장비)
이봉수(의대 63) (662) 941-0565
9925 Painter Ave., Suite #J Whittier CA 90605

Silla America, Inc. (모터개발)
이기훈(의대 54) (323) 232-1233
1600 E. 25th St. Los Angeles CA 90011

Nature & Health, Inc.
송준성(의대 65) (714) 257-1800
451 W. Lambert Rd., #200 Brea CA 92821

상업/제조업

한국로트미
박정복(로트미 61) 212-360-2775
3475 W. 8th St. #200 Los Angeles CA 90005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 원(교대 74) (602)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성서장로교회
* 나인후(교대 65) (310) 515-7207
1555 Marine Ave. Gardena CA 90247

로스앨리스산리교회
임대수 (송대 80) 818-500-3915
600 Balboa Ave. Glendale, CA 91206

뉴 삼별 한마음 교회
권수영(의대 57) (213) 387-0930
2554 W. 8th. #101. Los Angeles, CA 90005

오렌지카운티 영락교회
허영진(로트미 61) (714) 534-1135
12612 Buaro St. Garden Grove CA 92640

유니온 교회
박부남(지대 64) (626) 858-6300
710 N. Lark Erian Ave. West Covina CA 91791

토렌스스즈교회
강철호(의대 73) (310) 370-5500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리조트

Pyramid Lake RV Resort
이재권(법대 56) (213) 725-3644
45100 Capco Ave. Gorman CA 92643

컴퓨터/컨설팅

Computer Pro
윤재우 (공대 83) (310) 626-6361
22521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5

Keyoung Art Advisory LLC
강민영(미대 68) (415) 750-0533
288 Bush St. #3949 San Francisco CA 94104

통역/번역

Better Comm 통역
정연진 (언대 81) (213) 387-1166
3700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안방병원/안약

이봉수 한방병원
이봉수 (수의대 66) (213) 381-6090
958 S.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06

이형교 한의원
이형교 (교학대학원 66) (714) 955-2733
7731 Katella Ave. #B Stanton, CA 90680

식품/음식점

용수산 Yong Su San
Traditional Korean Cuisine
213-399-0042
950 S. Vermont Ave. LA. CA 90006

장수장 Jang Soo Restaurant
310-327-9292
1404 W. Redondo Beach Blvd.
Gardena CA 90247

마포 주물럭 Mapo Korean BBQ
Restaurant (310) 679-3622
14309 S. Crenshaw Blvd. #102 Gardena CA 90248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호(상대 74) (562) 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백창원순두부 213-382-6660
이태로(법대 66) 1413 S. Vermont Ave. L.A. CA 90006

엔지니어링



부동산

June Lee 부동산
이은화 (84송대) (866) 525-3222
4228 Convoy St. San Diego CA 92111

수의학/동물병원

College Pet Clinic
강동원(수의대 75) (760) 631-2080
475 College Bl. #8 Oceanside, CA 92057



복 가주

상담/컨설팅

두려하나 결혼정보

현진 전 상담에 현재 다수 회원 확보. 높은 성공
율과 많은 결혼, 재혼, 사내 이직, 사내 동문
자 동문, 자녀, 취업, 이민, 장사, 상담, etc.
(510) 224-0780 2510 Telegraph Ave Ste. 200
Oakland CA 94609 www.2zakes1.com

수의학/동물병원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수의대 67) (310) 232-3465
4704 MacDonnell Ave. Richmond CA 94805

Hillview Pet Hospital
김희원 (수의대 73) (510) 525-4571
686 San Pablo Ave. Albany, CA 94706

의료/전문/의과/전문역

박희태 한의원
임희태(간호대 73) (818) 818-2959
627 Water St. Santa Cruz CA 95060

산부인과
황송하(의대 65) (415) 831-6068
402 8th Ave. #201 San Francisco CA 94118

Samuel Choi, DDS
최상진(의대 63) (818) 482-2927
3046 Watt Ave. Sacramento CA 95821

MD,VA 워싱턴DC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석원(경매대 84) 301-279-6968
414 Hangerford Dr #203 Rockville MD 20850

공인약가사
Lee Kyo Syp, CPA
이규익(상대대 68) (703) 642-2900
4300 Evergreen Ln. Suite H Annandale VA 22006

Choi & Co., CPA
최현(상대대 68) (302) 636-9009
2006 Limestone Rd. #10 Wilmington DE 19808

자산관리
IPM World Management
이태영(상대대 60) (410) 777-8881 ex158
1430 Joh Ave. Suite M Baltimore MD 21227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석원(상대대 84) 301-279-6968
414 Hangerford Dr #203 Rockville MD 20850

변호사/법률사무소

Moon-Park & Associates
박성준(상대대 75) (703) 941-7395
7617 Little River Trpk #300
Annandale VA 22003

BSKB, LLP 특허법률사무소
권성준(상대대 57) (703) 205-8004
8110 Gatehouse Rd. Fall Church VA 22042

부동산/정예업

BPS Appraisal Company
박복원(상대대 60)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엔지니어링/영공
Drivtech, Inc.
* 영달원(상대대 89)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수역학/동물병원/요업
한익(상대대 60) (703) 751-3707
2923 Blue Holly Ln Oak Hill VA 20171

우래록
박복원(상대대 60) (703) 927-7300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의료/내과/전문의/치과

권철수 신경정신과
권철수(상대대 68) (410) 235-2880
711 W. 40 St. Routledge Office Building #406
Baltimore, MD 21217

도산철내과
도산철(상대대 63) (410) 760-6823
1600 Crain Highway #206 Glen Burnie MD 21061

Belair Pediatric Center
김철수(상대대 56) (410) 359-2811
419 S. Union Ave. Havre De Grace MD 21076

Potomac Hospital/Fairfax Hospital
광준희(상대대 71) (301) 949-1345
2300 Opitz Blvd. Woodbridge VA 22191

이종국 종합의료원
이종국(상대대 52) (703) 256-6204
4605A, Pincrest Office park Dr. Alexandria VA 22312

여행업

Hans World Travel 한인성 (분리 55)
761 Little River Trpk, Suite-102 Annandale
VA 22006 Tel 703-658-1717 Fax 703-
658-3110 hanstravel.joanne@gmail.com

이준영 치과
이준영(치과대 74) (301) 220-2828
8201 Greenbelt Rd. Suite L Benney Heights MD 20740

원보리 여생사
원보리(상대대 75) (703) 242-0590
2915 Hunter Mill Rd. #8 Oakton VA 22123

통일시대연구소
이종철(상대대 60) (703) 304-2129
5116 Donovan Dr. #407 Alexandria VA 22304

FL 플로리다
First Choice Guild, Inc.
* 김철호 (미대 67)
8200 NW 27th Ave., Miami, FL 33056

GA 조지아

FOB Synthesis Inc.
최우철(상대대 74) (404) 601-1412
3400 Cobb International Blvd Kennesaw GA 30152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 (상대대 76) 678-473-4731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Good Nutrition
김민복(상대대 72), 김광주 (상대대 73),
문준현 (상대대 84) (770) 992-2363
463 Beaver Run Rd. Norcross GA 30071

금공
Metro City Bank
박복원 (상대대 71) (770) 455-4989
5441 Peachtree Hwy #109 Doraville, GA 30340

리얼타이어/사주사
MYTown.com (온라인공과)
조석성(상대대 60) (678) 397-1025
3415 Duluth Park Ln. Duluth GA 30096

IL-IN 시카고

건축/실업
Arbor Engineers & Planners
* 장승규(상대대 60) (773) 285-8808
4895 N. Elston Ave. Chicago IL 60630

공인약가사
심상구 공인회계사
심상구(상대대 63) (618) 257-1788
1600 Lebanon Ave. Belleville IL 62221

연론
Korean World Times
오성 (상대대 76) 201-840-8043
605 Broad Ave. #206 Ridgfield IL.

이홍미 변호사
이홍미(상대대 63) (773) 427-8870
4001 W. Devon Ave. #204 Chicago IL 60646

Law Office of Ben H. Kim & Associates
김병현(상대대 55) (773) 583-3558
3403 W. Lawrence #201 Chicago IL 60625

부동산/정예업/여행업
Green Realty, Inc.
김정철(상대대 71) (847) 729-5850
1701 E. Lake Ave. #442 Glenview IL 60025

IT Realty, Inc.
송영환(상대대 60) (847) 309-3100
682 E. Rand Rd. #22 Mt. Prospect IL 60056

CLK Enterprises
김동희(상대대 66) (630) 207-2515
24 McCormick Drive Oak Brook IL 60053

로열 부동산
양우철(상대대 61) (847) 877-7075
5020 Crain St. Skokie IL 60077

셀리 정 공인재정상담가
정정숙(상대대 70) (847) 301-1777
79 Scully Dr. Schaumburg IL 60193

수역학/동물병원
Munster Animal Hospital
한복현(상대대 61) (219) 924-0101
10421 Calumet Ave. Munster IN 46321

Lincolnwood Ani. Hosp.
곡영호(상대대 72) (847) 677-7070
6431 N. Cicero Ave. Lincolnwood IL 60712

의료/내과/전문의/치과
Elgin Cardiac Surgery, S.C.
임원희(상대대 59) (847) 695-1820
조준현(상대대 63) (847) 695-1620
915 Center St. #1003 Elgin IL 60120

Suh Sang Hun, MDCP
서상훈(상대대 65) (773) 522-2010
1401 S. California Chicago IL 60606

Rosa H. Choi, MD, SC (소아과)
최혜옥(상대대 53) (708) 383-3010
6853 W. North Ave. Oak Park IL 60302

Dixie Hospital
노영철(상대대 62) (708) 709-6030
333 Dixie Highway Chicago

*** 이준우 치과**
이준우(치과대 54) (847) 390-7474
9101 Greenwood Ave, Niles, IL 60714

상재희 치과
이재희(상대대 68) (618) 239-6151
1600 Lebanon Ave. #104 Belleville, IL 62221

서승환 치과
서승환(상대대 57) (847) 518-0228
8118 N. Milwaukee Niles IL 60714

이철주 치과
이철주(치과대 61) (847) 675-0882
64 Old Orchard Shopping Center, #426 Skokie IL 60077

약업/문약업

RFUMS / Chicago Medical School
김원봉(상대대 54) 847-578-6847
3333 Green Bay Rd. N. Chicago IL 60604

The Intercultural Institute of Illinois
홍성철(분리 55) (617) 508-1190
6950 W. Touhy Ave. Chicago IL 60656

MA 뉴잉글랜드

병원/수역학/동물병원

Twin City Animal Hospital
양상재(수역대 62) (978) 343-3049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Tewksbury Animal Hospital
김문소(상대대 61) (978) 851-3636
1098 Main St. Tewksbury MA 01876

강길희 산부인과
강길희(상대대 59) (978) 957-4660
505 Nashua Rd. Dracut MA 01826

JK Realty Trust 김재호(상대대 56) (617)
277-7455 POBox 698 Brookville MA 02446

MI 미시간
디트로이트 한국문화회관
전숙영(상대대 70) (248) 356-4488
27075 W. Nine Mile Rd Southfield MI 48034

의료/내과/전문의
Kent Pathology Lab
김기환(상대대 57) (616) 458-1255
2650 Horizon Dr. SE #8 Grand Rapids MI 49546

Genesys Hurley Cancer Institute
오동환(상대대 65) (810) 762-5490
302 Kensington Ave. Flint MI 48903

이한준 심장내과
이한준(상대대 59) (248) 569-0122
22255 Greenfield Rd. #231 Southfield MI 48075

윤호은 심장내과 C. A. V. A
함호원(상대대 63) (248) 844-1010
645 Barclay Circle Rochester Hills MI 48307

St. Joseph Mercy Hosp.
장정호(상대대 65) (810) 762-3490
44405 Woodward Ave. Pontiac MI 48341

Chul Kang, MD
장정호(상대대 65) (269) 427-5304
P.O. Box 250 Bangor MI 49813

MN 미네소타

HDM Inc.
김영철(상대대 65) (651) 730-6205
570 Hale St. St. Paul MN 55128

Evis Inc.
김영철(상대대 61) 952-646-0238
10250 Valley View Rd. Suite 123 Eden Prairie MN 55344

Cardiovascular Division Univ. of Minnesota
Medical School
장구원(상대대 56) 420 Delaware St. SE. Mayo Mail Code 508
Mpls MN 55455

NJ-NY 뉴욕/뉴저지

건축/실업
김재현 건축설계
김재현(상대대 63) (703) 549-1616
3851 Park Ave. Edison NJ 08820

남길복 설계사무소
남신우(상대대 61) (609) 362-7005
1530 Brunswick Ave. Lauren Cville NJ 08848

공인약가사

Sung N. Pak, CPA
박성남(상대대 76) 212-760-2338
481 8th Ave. #1549 New York, NY 10001

Edward CM Kang CPA
강종우(상대대 60) (212) 594-9034
Empire State Building # 820
New York NY 10016

세원 회계법인
* 김명환(상대대 65) (212) 213-4151
1270 Broadway Suite# 605
New York NY 10001

Wesley Y. Chung CPA
정일화(상대 55)
6385 Whitestone Place
Duluth GA 30097

Kenneth K. Lee CPA
이경림(상대 64) (212) 766-9144
1430 Broadway Suite 906
New York NY 10018

Changsoo Kim, CPA P.C.
김창수(상대 64) (212) 790-1768
38 W 52St Suite #500 New York NY 10001

Kim Lee & Co.
김용배 (미대 77) (212) 563-2727
1261 Broadway #302 New York, NY 10001

서울공인회계사사무소
원주환 (상대 88) 718-982-4444
150-13 Northern Blvd 2nd Fl Flushing, NY 11354

Wha Sam Kong, CPA
* 공화성(상대 64) (201) 669-2255
6135 Bergantine Ave. #2 W.

Young Sik OH, CPA
오영식(상대 72) (201) 569-1177
333 Sylvan Ave. #216 Englewood Cliffs, NJ 07632

Kevin Lee & Co.
이근수(상대 64) (212) 686-0115
1201 Broadway #707 New York NY 10001

Young Tai Choi E.A.
* 최영태(상대 67) (212) 695-0205
13 E 30th St. 2F New York NY 10016

금융/재정관리

Genko Financial
유호권(상대 71) * (201) 945-4692
21 Grand Ave., #605 Palisades Park NY 07650

레저/리조트

New York Golf Center
이진구(상대 60)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SK Group, Inc.
우상영 (상대 55) (973) 815-1234
55 Central Ave. Passaic, NJ 07055

E Mart Corp.
김학수(상대 65) (718) 720-4498
195 P. Richmond Ave. Staten Island NY 10302

Sun Furniture
장은영(상대 59) (718) 224-3737
250-21 Northern Blvd. Little Neck NY 11362

Windsor Wine Shop
이규대(상대 57) (212) 779-4422
3rd Ave. New York NY 10016

Sons Pawmbrokers Co.
곡선진(상대 61) (973) 345-0063
72 Broadway Paterson NJ 07055

Caps Unlimited
전병수(상대 70) : (718) 293-7711
17 East 170th St. Bronx NY 10452

광고/지역 디자인

Symbol Power Inc.
김형원(상대 81) (212) 967-0874
990 6th Ave. #6M New York NY 10018

변호사

연봉원 변호사
* 연봉원(상대 61) (212) 779-1828
1281 Broadway #201 New York NY 10001

조대영 변호사
* 조대영(상대 61) (212) 779-7770
445 5th Ave., Suite 9E New York NY 10016

Joon Hee Park, Attorney at Law
박준희(미대 86) (212) 813-8383
1001 Avenue of the Americas. #1105
New York, NY 10018

Deloitte & Touch
김영희(상대 80) (212) 436-2587
2 World Financial Center New York NY 10281

최형무 변호사 법률사무소
최형무(상대 69) (718) 463-3500
36-09 Main St., Suite #208 Flushing NY 11354

Weinstein, LLP
김용환 (상대 70) (212) 616-3007
420 Lexington Ave., #2520 New York, NY 10170

서장석 변호사
서장석(사회과학대 91) (201) 363-0010
460 Bergen Blvd., #206 Palisades Park NY 07650

신윤남 변호사
신윤남(상대 70) (718) 463-3131
158-14 Northern Blvd. 2FL Flushing NY 11358

Sang Chin Yoon, Attorney at law
윤상진(상대 77) (201) 461-1616
1580 Lemoine Ave., #9 Fort Lee NJ 07024

무역/유통업체

Evershine Mt. Corp. (의류)
김우영(상대 60)
350 5th Ave. New York NY 10118

EAC Trading, Inc (전기 상품)
황정복(상대 50) * (516) 466-5678
98 Cutter Mill Rd. Great Neck NY 11021

부동산/주택업

Century 21 Infinity Realty
* 이재현(상대 60) (201) 944-5353
242 Broad Ave. Palisades Park NY 07650

Cosmo Realty
* 이재현(상대 60) (201) 944-4949
258 Broad Ave. Palisades Park NY 07650

다니엘개일 스테디 부동산
이영숙(상대 58) (516) 484-1800
1400 Old Northern Blvd. Roslyn NY 11576

Re/max Diamond
류재훈(상대 71) * (732) 742-1919
1199 Amboy Ave. Edison NJ 08837

뉴스타 부동산
송용길(상대 69) (718) 224-3308
214-22, 42nd Ave. Bayside NY 11361

Ji Jay Corp. (부동산/관리)
최한영(상대 58) * (718) 268-2553
23 Briarfield Dr. Lake Success NY 11020

서비스/기업/법인

Women In Need Center
부지개의 창 여성 임시숙터
김은경(상대 82)
P.O.Box 54393 Flushing NY 11354

XenoBiotic Lab, Inc.
김태현(상대 73) * (609) 779-2295
107 Morgan Lane Plainsboro NJ 08535

IBECONS Int'l
김재철(상대 58) * (718) 650-0486
1228 Forest Ave. Staten Island NY 10310

서비스

KARLAN Service, Inc.
김영래(상대 78) (973) 278-1015
189 East 7th St. Paterson, NJ 07524

여행업

아리랑여행사
AIRRANG TRAVEL SERVICE, INC 정영희 (사대 62) (212) 563-3351 * 유럽 전지역 투어(서유림, 동화림, 리아아림) 및 상지여행 * 온 지역 크루즈 투어 * 국내 방문 및 아웃리터 * 라지 에어 티켓 800-229-8255 / Fax: (212) 209-0969 10 W 32nd St. Suite 1106, New York, NY 10001 airrangs@att.net

서비스 / 클리닉 / 건강관리

C & K Dry Cleaner
김진지(상대 60) * (914) 698-1919
965 Mamaroneck Ave. Mamaroneck NY 10543

Kim's Dutch Cleaners, Inc
김규희(상대 63) * (856) 596-5992
750 Route 70, Eveshamplace Malton NJ 08003

Alco Lock & Safe, Inc.
장인우(상대 58) * (212) 867-3380
405 Lexington Ave. Crystler Building Arcade NY

수업 / 스포츠

Ridgeline Park 동물병원
김기택(상대 81) * (201) 814-0095
199 Main St. Ridgeline Park NY 07660

브그덴 골프센터
김보나(상대 63) * (201) 469-2400
30 Cross St. Bgotta NJ 07803

언론 / 연예

Radio Korea NY
권민지(상대 69) * (718) 358-9300
136-58 35th Ave. #47 Flushing NY 11354

Korea Broadcasting System
황성무(사회과학대 83) * (212) 246-7709
1778 Broadway #2005 New York NY 10019

B & P Group, Inc.
이석우(상대 69) * (201) 585-5063
138 W. Central Blvd. Palisades Park NY 07650

예술 / 갤러리

Nahrah Culture Center
김광현(미대 57) * (201) 944-1047
1605 Center Ave. Fort Lee NJ 07024

유통 / 라이프

Lighting Craftsman, Inc.
조자희(문대 68) Tel: (212) 266-4474
173 Broadway New York NY 10002

Pann-Craft Corp (건강기능 식품)
손한별(상대 70) (201) 947-6644
340 Tremont Ave. Fort Lee NJ 07024

운송 / 유통 / 통관

Kiss Products, Inc.
김광호(문대 82) 516-625-9292
57 Seaview Blvd. Port Washington NY 11050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718) 995-7060
147-38 182nd St. Jamaica, NY 11413

중앙장의사
(Central Funeral Home)
하혜민(미대 99) (201) 945-2009
809 Broad Ave. Ridgefield NJ 07657
718-353-2424
136-25 41St Ave. Flushing NY 11355
www.centralfuneral.com

의료 / 내과 / 전문의

이재진 성상내과
이재진(의대 59) 718-426-6464
37-24 75th St. Jackson Heights, NY 11372

Young S. Hahn, M.D.
한영수 안과(의대 61) (718) 478-3344
40-23 74th St. Elmhurst NY 11373

방준재 내과
방준재(의대 63) (718) 768-1264
200 Prospect Park West Brooklyn NY 11215

Ob & Gynecology
송화희(의대 59) * (718) 963-8533
760 Broadway Brooklyn NY 11205

Young Il Lee, M.D.P.A.
이영철(의대 60) * (732) 574-0055
2283 St. George Ave. Rahway NJ 07065

Dai M. Lim, M.D.P.C.
임대목(의대 58) * (518) 393-7434
1370 Union St. Schenectady NY 12308

방병기 일반내과
방병기(의대 67) * (609) 799-4644
9 Schalks Crossing Rd., #720 Plainsboro NJ 08536

백승현 위장내과
백승현(의대 73) * (732) 744-9090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의대 66) * (718) 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Hudson Pain Management
강창호(의대 66) * (201) 894-4786
464 Hudson Terrace #G102 Englewood Cliffs NJ 07632

레이자 전문의료원
최현숙(의대 69) (718) 281-1100
222-15 Northern Blvd. Bayside NY 11361

마취의료원
추지옥(의대 57) * (201) 569-6541
136 Hollywood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김현철 산부인과
김현철(의대 73) * (718) 353-5990
41-76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박범열 소아과
박범열(의대 75) * (718) 899-4600
40-10 70th St. #1st Fl. Woodside NY 11377

의료/만화
Bernards Professional Center
김현중(의대 56) 소아과 (908) 766-4660
150 N. Finley Ave. Basking Ridge NJ 07920

정지우 변호사

• 정지우(의대 69) (718) 461-1515
147-01 41st Ave. Flushing NY 11355

St. James Hospital
교목현(의대 59) (973) 465-2677
155 Jefferson St. Newark NJ 07105

Lee Allergy
이혁승(의대 73) (201) 568-3800
385 Sylvan Ave. #21 Englewood Cliffs NJ 07632

Thoracic and Cardiovas. Assn. Inc.
김자익(의대 69) (304) 343-7576
2335 Chesterfield Ave. #300 Charleston WV 25304

Personal Touch PM & R. LLC.
조광현(의대 60) (516) 783-1577
250 Pettit Ave. #1 Baltimore MD 11710

국승동 정신과
국승동(의대 56) (718) 273-8052
2144 Richmond Ave. Staten Island NY 10314

Rockland Psychiatric Center
선충환(의대 57) (845) 686-8214
140 Old Orangeburg Road Orangeburg NY 10962

Stan S. Choi, M.D.
최승환(의대 61) (908) 769-1020
34-36 Progress St. #B5 Edison NJ 08820

의료 / 내과

신영수 치과
신영수(의대 64) (914) 997-0812
185 Maple Ave. #122 White Plains NY 10601

이충의 치과
이충의(의대 62) (212) 947-4742
25W. 32St. #601 New York NY 10001

이성길 치과
이성길(의대 56) (718) 461-2725
136-30 Maple Ave. #1H Flushing NY 11355

계동희 치과
계동희(의대 67) (718) 898-9049
46-04 43rd Ave. Woodside NY 11377

박희병 치과
박희병(의대 63) (718) 939-1144
136-78 39th Ave. Flushing NY 11354

조흥환 치과
조흥환(의대 65) (718) 463-0253
136-25 Maple Ave. #206 Flushing NY 11355

원두수 치과
원두수(의대 61) (718) 979-7277
2799 Hyatt Blvd. Staten Island NY 10306

송지현 치과
송지현(의대 68) (718) 494-3940
75-21 Broadway 2FL. Elmhurst NY 11354

의료 / 내과

Merrick Chemists
이승우(의대 63) (516) 378-0119
131 Merrick Ave. Merrick NY 11566

Ray Drug
최구진(의대 54) (212) 795-1240
4061 Broadway New York NY 10032

Rayson Drugs, Inc.
김문경(의대 61) (212) 348-2117
1870 Lexington Ave. New York NY 10029

Kopald's Pharmacy
김성현(의대 58) (718) 823-3443
700 Morris Park Ave. Bronx NY 10462

Sun Pharmacy
김정진(의대 67) (212) 695-4232
29 W. 32nd St. New York NY 10001

Smile Drug
성기호(의대 57) (718) 358-3800
150-11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내과

Jeffrey Allen Corp
이기영(의대 70) (201) 863-5160
Metroway Suite 2 Secaucus NJ 07074

Jade Eastern Trading, Inc.
이재광(의대 61) (201) 440-8500
245 Moonschie Rd Moonachie NJ 07074

내과 / 전문의

Hanco Service LLC
조한수(의대 72) (201) 967-5769
249 Oradell Ave Paramus NY 07652

중고 / 교육

트든 한국교회
김상근 (문의 71) (718) 463-8181
141-33 33rd Ave. Flushing NY 11354

학원

Cooper Art
손승익(의대 77) (201) 886-7275
2134 N. Hudson St. Fort Lee NJ 07024

중앙일보문화센터 (학원/댄스교실)
전병일(의대 50) (718) 461-2324
43-27 36th St. L.L.C. NY 11101

조달훈 박사 수학교실
조달훈(의대 66) (718) 224-6284
32-25 Bell Blvd. Bayside NY 11361

안면

이수호 한의원
이수호(보건의대원 61) (718) 353-6207
136-78 39th Ave. Flushing NY 11354

정영희 한의원
정영희(간호대 72) (201) 658-8505
249 Oradell Ave Paramus NY 07652

NV 내버다

의료 / 내과

Best Care Dental
김영중(의대 68) 702-394-2628 702-460-7115
5205S. Durango Dr. #103 Las Vegas NV 89113
www.bestcaredental.lv.com

OH 오아미오

Life Management Center
이영종(의대 56) (419) 224-1122
915 W. Market St. #D Lima OH 45805

Charles Sung 수의학원
성충환(수의 75) (330) 534-8383
47 Hall Ave. Hubbard OH 44425

의료 / 내과 / 전문의

Lancaster Radiation
조희경(의대 68) (614) 566-9506
401 North Wing St. Lancaster OH 43130

OK 아틀랜드

Deaconess Hospital
민경환(의대 56) 405-604-4035
5001 North Portland Ave. Oklahoma City OK 73112

Muskogee Pulmonary Clinic
이상강(의대 72) 918-687-3994
615 South 32nd St. Muskogee OK 74

OR 오레곤

* 열혈 한인교회

최준현(법대 63) (503) 231-1625
6161 SE Stark St. Portland OR 97215

PA 필라델피아

이도미 일식당

최종현(법대 61) (215) 412-4228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Timothy Haas & Assoc.

최종현(법대 61) (215) 412-4228
500 Township Line Rd. Ste. 100 Blue Bell PA 19422

공인연계사

Choi & Co., CPA

*최현(공대 66) 302-636-0009
2006 Limestone Rd. #10 Wilmington DE 19111

Greene / 영문 / 라태일

More Bank 정철환(의대 61) 267-251-7290
900 Valley Rd. #C-201 Elkins Park PA 19027

* New York Life

윤경숙(문의 59) (212) 441-3040
101 Gibraltar Rd. Ste. 100 Horsham PA

바영/영문/라태일/잡

Jay & CO
채광문(문의 59) (215) 867-2337
4009 Crescent Ave. Lafayette Hill PA 19444

수익사 / 동물병원

GHEL-WAYNE Animal Hosp.
민정신 (수의 63) (215) 943-5932
5524 Wayne Ave. Philadelphia PA 19144

Community Animal Hospital
지용민 (수의 61) (215) 635-2700
8023 Old York Rd. Elkins Park PA 19027

Cottman Animal Hospital
주귀미 (수의 68) (215) 745-9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youngbaekang@yahoo.com
강영환(수의 59) (610) 623-8560
708 Baltimore Ave. EastLansdowne PA 19050

Community Animal Hospital
이병인(수의 69) (215) 635-2700
8023 Old York Rd. Elkins Park PA 19027

연약성 / 요역업

August Moon 연희자
류유진 (상대 59) 610-277-4008
300 E. Main St. Norristown PA 19401

의료 / 약국

쌍둥이 약국
허창기 (약대 67) (215) 455-2411
5304 N. 5th St. Philadelphia PA 19120

의료 / 내과 / 전문의

Yung Doo Song M.D.
송정두(의대 56) (215) 342-2015
6816 Caster Ave. Philadelphia DE 19149

Albert Einstein Medi
김영남 (의대 61) (215) 456-6507
5401 Old York Rd. Philadelphia PA 19141

Neurology Associates
배성호 (의대 65) (302) 731-3017
774 Christiana Rd. #20 Wilmington DE 19173

Riddle Memorial Hospital
시원삼 (의대 67) (610) 891-3321
1068 W. Baltimore Pike Media PA 19063

Hack R. Chung MD, MPH
정학림(약대 56) (215) 641-5323
7170 Layfayette Ave. Fort Washington PA 19034

문대국 정형외과
문대국의(의대 67) (302) 731-0600
83 Omega Dr. Newark DE 19713

의료 / 내과

김종규 치과
김종규 (치대 63) (215) 745 - 6123
6725 Caster Ave. Philadelphia PA 19149

김강칸 치과
김강칸 (치대 64) (215) 224 - 2110
5438 N. Chancery St. Philadelphia PA

TX 유스틴

수익사 / 동물병원

신곡 동물병원
이윤선 (수의 81) (281) 395-0700
24210 Westheimer Pkwy # 300 Katy TX 77454

의료 / 내과 / 전문의

이진현 산부인과
이진현(의대 66) (281) 343-5455
7333 N. Freeway Ste. 260 Houston TX 77076

검수 / 시험 / 컨설팅

선박검수
American Bureau of Shipping
유한정(공대 69) (281) 877-6473
16655 Northchase Dr. Houston TX 77060

원유개발 컨설팅
Lanie Petroleum Inc.
원인성(의대 50) (832) 722-0075
3131 Rosemary Park Ln. Houston TX 77082

정약사

한국 정약사
조시우(문의 59) (281) 530-5400
13400 Bellaire Blvd. Houston TX 77063

UT 유타

서비스/여행사 Asia World Travel&Tour
박종수(공대 60) (801) 263-8866
232 E. 3000 South #4 Salt Lake City UT 84137

두리 하나 결혼 정보

6년 전 설립해 현재 다수 회원 확보. 높은 성공율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한인

정지선(상대 58) (510) 224-0760 2910

Telegraph Ave. Ste. 200 Oakland CA 94609

www.2makes1.com



WA 워싱턴주

역로 / 개과 / 클리닉

박정철 내과(혈액종양 분과)
 박정철(의대 62졸) 315-841-8635
 22226 Clift Ave. Ste. #304 Des Moines WA 98198
 김성열 치과 Daniel S. Kim, DDS
 김성열(의대 61) (360)254-5900
 21796 136th Ave. Sui #101 Vancouver WA 98684

Painless Clinic
 신항범(법대 73) 425-228-7446
 947 Powell Ave. SW Suite 104 Renton WA 98057

개업소 / 개과

The Boeing Company
 김재훈(공대 72) 425-373-2858
 PO Box 3707 MCL-49 Seattle WA 98124

동물병원

Federal Way Ani. Hospital
 이송숙(수대 75) 253-529-0306
 1700 S.305th Place, Ste A Federal Way
 WA 98003

컴퓨터 / 소프트웨어

Soft Tech International Inc
 유성열(공대 72) (425)643-9662
 13916 SE 47th St. Bellevue WA 98006

WA 워싱턴

Gundersen Clinic
 윤준(의대 61) 608-782-7300
 1836 South Ave. La Crosse WI 54601

‘편집후기’

○...미주 동창회의 연중 가장 크고도 중요한 행사인 미주 평의원 회차가 지난 7월15일 성공리에 끝을 맺었다. 이 행사를 위해 임원진이 기울인 노력과 봉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경반 고생했다. 그런데 이번 행사 전 임원진이 Seattle에서 야구 신세를 푼다는 말이 한 분 있다. 그 후 Quality Inn을 경영하던 James Shin 씨가 바로 그 분이. Shin사장은 자신의 미즈니스크로 바쁜 와중에도 임원진의 무거운 행사 보따리들을 공항에서부터 내내 운반해준 것은 물론 행사를 끝내고 돌아올 때도 Norwegian Pearl로 정박한 항구까지 와서 집을 Pick Up 해주었다. 게다가 맛있는 해장 차림으로 안내해주고 그러고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자 자신의 차에서 초대해 여흥



11주 동창회 임원진이 James Shin 사장 차에서 내외(가문대)와 기념사진을 찍었다. 시간을 만들어주시까지 했다. 같은 동포로 서로 감동 받으셨다.
 James Shin사장의 Quality Inn은 2800 S. 132nd St. Seattle WA 98108. Tel 206-241-9322
 다. 공항 근처에 위치해 있어 이동도 편리하다. ***

각 지부 회장단

남가주	회장	서치원(공대 69입)	310-719-5422 charliesuh49@gmail.com
	자치회장	김상진(문리 66입)	714-396-0493
북가주	회장	이장우(문리 72입)	408-891-0200 president@snuua-nc.org
	자치회장		
뉴욕	회장	김창수(약대 64입)	212-760-1788 changsookimcpa@hotmail.com
	자치회장		
뉴잉글랜드	회장	최선주(간호 68입)	781-674-2498 yoonpark@yahoo.com
	자치회장	장수인(음대 76입)	978-264-2988 soo1hnee@comcast.com
달라스	회장	이 준(공대 73입)	469-235-6196 junlee41@yahoo.com
	자치회장	윤수경(음대 77입)	972-248-8811
특키 마운틴스	회장	표한솔(치대 58입)	303-822-9370 303-755-1168 drpyo@aol.com
	자치회장		
미네소타	회장	정은옥(간호대 75입)	763-773-7227 sallykim75@yahoo.com
	자치회장		
샌디에고	회장	서정용(공대 81입)	858-740-4843 cysuh727@gmail.com
	자치회장		
시카고	회장	김영호(의대 71)	708-922-0748 fhmcUSA@gmail.com
	자치회장		
애리조나	회장	오원환(문리대)	yhoh@ratheon.com
	자치회장		
알래스카	회장	류제훈(농대 55입)	907-223-0887 jaejeon@hotmail.com
	자치회장	배석현(농대 58입)	907-561-0818
오레곤	회장	이석진(공대 89입)	503-317-5625 seokin@gmail.com
	자치회장		
오하이오	회장	송원길(의대 58입)	614-378-2918 wonsong314@aol.com
	자치회장		
워싱턴DC	회장	송상희(문리 71입)	703-483-0801 503-0864 sanghois@yahoo.com
	자치회장		
워싱턴주	회장	윤석진(문리 64입)	425-670-9067 sock@rocket.com
	자치회장		
유타	회장	배유환(공대 73입)	801-474-1945 you.bae@yahoo.com
	자치회장		
조지아	회장	박 민(음대 80입)	770-449-0000 minpakhg@yahoo.com
	자치회장	김정현(공대 74입)	770-814-0618 jhkim@noabank.com
중부 텍사스	회장	이명재(상대 58입)	612-691-7739 267-962-1077 yjeel1023@yahoo.com
	자치회장		
필라델피아	회장	주기록(수학 68입)	215-990-8717 kmjco47@yahoo.com
	수석부회장	김정현(공대 68입)	484-744-6785 dhk064@gmail.com
플로리다	회장	박창익(농대 64입)	954-599-3452 changikpark@daum.net
	자치회장		
캐롤라이나	회장	김기현(문리 51입)	919-530-6451 khk@ccu.edu
	자치회장		
하와이	회장	김용수(수학 75입)	808-394-2369 ykim@hawaii.edu
	자치회장		
하들랜드	회장	구명순(간호대 66입)	913-268-0228 chungsm@yahoo.com
	부회장		
휴스턴	회장	탁순덕(사대 58입)	713-984-2066 taksoond@yahoo.com
	자치회장	이호성(공대 72입)	281-877-6584 hlee@eagle.org
캐나다 밴쿠버	회장	이광호(농대 62입)	604-250-0181 604-521-3009 khlee614@naver.com
	부회장	조석기(상대 71입)	604-688-4039 서명철(의대 71입) 778-322-7732
캐나다 앨버타	회장	조용희(자연 82입)	403-620-8261 dalhousiedg@hotmail.com
	부회장		

미주동창회 조직과임원단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제11대 회장단 및 임원

역대 회장

박윤호(문) · 강수성(의) · 이병준(상) · 오민석(법) · 이용락(공) · 오충조(치) · 이명택(공) · 이진구(농)

영예회장: 송승연(문)

제11대 회장: 김은종(상)

차기 회장: 오민환(문)

관악후원회 부회장: 노영호(공)

집행부 임원

사무총장: 성무경(상)
 총무국장: 박복지(문)
 재무국장: 강석진(상)
 사업국장: 이경희(문)
 선외국장: 이창대(농)
 감 사: 김강현(상) · 박경필(농)
 기금모위원장: 이흥도(공)
 IT개발위원장: 김영연(공대)

회보 임원

발 행 인: 김은종(상)
 상임고문: 박석준(상) · 김건진(문)
 편집위원장: 지인수(상)
 편집주간: 이기훈
 편집위원: 조동훈(의) · 박양훈(문) · 이재영(상) · 나철삼(문) · 이흥도(공) · 김지영(사) · 김성수(문) · 이현영(문) · 김홍현(인문)

논설위원

김일환(치) · 김기태(LA) · 조동준(LA) · 최홍원(LA) · 박순(WA, DC) · 육길원(CH) · 이형광(LA) · 정용택(PA) · 윤상래(NE) · 김창수(NY) · 임승래(SF) · 장석경(CH) · 이석구(NY) · 정요진(LA)

회칙위원회

위원장: 서준민(공 · PA)
 위 원: 한재원(의 · IL) · 이민영(법 · TX) · 윤상래(수 · NE) · 김지영(사 · LA) · 선용남(농 · NY) · 함은선(문 · WA)



Seas Gift

A Tasty Gift From The Sea

Korean Seaweed Snacks are versatile and can be used for a variety of dishes!

- Use it as a garnishment on your favorite dish!
- Try it as a unique pizza topping!
- Tastes great with your favorite soup!
- Excellent topping on your favorite salads!
- Create your own sushi! Just add rice!

Paramount, CA • Ph: 562.633.7400 • Fax: 562.633.7474 • www.jaylin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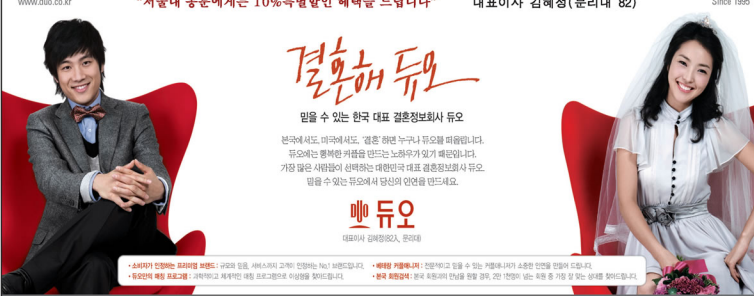
“서울대 미주 동창회의
발전을 축원합니다!”

Raysol Drugs, INC.

김문경 (약대 61) 212-348-2117

1870 Lexington Ave. New York NY. 10029

www.dso.co.kr “서울대 동문에게는 10%특별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대표이사 김혜정 (문리대 82) Since 1995



결혼해 듀오

믿을 수 있는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결혼' 하면 누구나 떠올릴 마음입니다.
듀오에는 행복한 커플을 만드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한민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말할 수 있는 듀오에서 당신의 인연을 만드세요.

듀오
대표이사 김혜정(82), 문리대

- **스타가 인정하는 프러포저를 비한다:** 규율과 믿음, 세심스까지 고려! 인형은 No! 비한다! 비한다!
- **배우자를 소개해드립니다:** 전문적이고 믿을 수 있는 커플매너가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드립니다.
- **동요한 커플을 프로그래밍:**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맞춤 프로그램으로 이상 커플을 찾아드립니다.
- **한국 화합심리:** 본국 화합심리 전문가를 활용, 2인 1방이 넘는 커플 중 가장 잘 맞는 커플을 찾아드립니다.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미주지사 213-383-0077 / 3055 Wilshire Blvd., #505 L.A. CA. 90010 뉴욕지사 212-947-2626 • 서울대 동문에게는 10%특별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문의 800-275-2525

“서울대 미주 동창회의 발전을 축원합니다!”



Charles H. Sung, DVM

성홍환(수의대 75) 330-534-8383 gentdoc47@yahoo.com

Companion Animal Medicine & Surgery – Special Interests
in Cardiology & Ultrasound
47 Hall Avenue Hubbard, Ohio 44425



제2회 'Brain Network Workshop' 및 기금 모금 친선 골프대회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주최의 'Brain Network Workshop' 과 이를 돕기 위한 기금 모금 및 친선 골프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9월 22일(토)에 열리는 '제2회 Brain Network Workshop' 은 현재의 남북 관계와 앞으로의 통일 전망을 중심으로 3분의 석학께서 강연을 하게 되며, 이에 며칠 앞서 9월 19일(수)에는 '제2회 Brain Network Workshop' 및 제3, 제4의 후속 Brain Network Workshop 개최를 위한 기금 모금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서울대 동문을 위한 행사 차원을 넘어 전체 재미 동포 여러분과 함께 친교를 나누며 단합하고 우의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로 계속 모시고자 하오니, 계속되는 행사에 많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고 많은 관심과 조원을 부탁드립니다.

골프대회일시

- 일시 : 2012년 9월 19일(수)
Tee Off : 1 PM
Dinner / Award Banquet : 6 PM.
- 참가인원 : 20명 한정
- 장소 : Wilshire Golf Courses & CC
301 N. Rossmore Ave. L.A. CA. 90004
Tel. 323-934-1121
- 참가비 : Donation 원칙으로 고객 기여자 순서로 20명
Out-Off. Payable to: SNJAA USA. (면세혜택)
- 문의 : 서울대 미주 동창회(Tel.310-615-7888)



골프대회조직

- 대회장 : 김은종(미주 동창회장)
- 명예대회장 : 준비위원장 : 지인수
- 조직위원장 : 성주경 • 섭외위원장 : 백옥자
- 홍보위원장 : 김병연 • 경기위원장 : 강호석
- 재정위원장 : 이종도 • 감사 : 김재영 박명일
- 역대 회장 :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치) 이영목(공) 이천구(농)
송순영(문)
- 수석부회장 : 오인환 • 관악후원회 부회장 : 노명호
- 서울대 미주 및 캐나다 각 지역 동창회 및 회장
- ▶ 남기주(서천) ▶ 복기주(이장우) ▶ 뉴욕(김광수) ▶ 뉴잉글랜드(정선주) ▶ 달라스(이준) ▶ 텍사스(이준) ▶ 미네소타(정은옥)
- ▶ 샌디에고(서정용) ▶ 시카고(김영호) ▶ 메리조나(오윤환) ▶ 앨래스카(윤재중) ▶ 오레곤(이석진) ▶ 오하이오(송원길) ▶ 워싱턴DC(송상희)
- ▶ 워싱턴주(윤석진) ▶ 유타(배유환) ▶ 조지아(박민) ▶ 중부텍사스(이영재) ▶ 캘리포니아(주기목) ▶ 플로리다(박창익) ▶ 하와이(김용수)
- ▶ 캐롤라이나(김기현) ▶ 하일랜드(구명순) ▶ 휴스턴(박순덕) ▶ 캐나다 밴쿠버(이광호) ▶ 캐나다 앨버타(조용희)



제2회 Brain Network Workshop

- 일자 : 2012년 9월 22일(토)
- 시간 : 9:30 AM~3:30 PM(중식 제공 12~1PM)
- 장소 : JJ Grand Hotel, Banquet Room
620 S. Harvard Blvd. L.A. CA.90005
Tel. 213-383-3000
- 참가비 : 무료, 단 참석 인원수 제한
- 주제강연
 - ▶ '남북 관계의 현재와 전망'
하용출 교수(Univ. of Washington)
 - ▶ '오바마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
고병철 명예교수(Univ. of Illinois at Chicago)
 - ▶ '통일을 위한 역사적 시각'
이재진 명예교수(Clarumont McKenna College)
 - ▶ '암 퇴치에 대한 희망'
차민영 박사(Seoul Medical Group 대표)

벤츠 E-클래스



출인원상

다온타운 LA벤츠 제공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회장 김은종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USA
1225 W. 190th St. #465 Gardena CA. 90248